

## 민속과 기록의 만남, '민속기록학'을 제창한다

김 덕 목\*

1. 머리말
2. 민속기록학의 정의와 범주
  - 1) 민속기록학의 개념과 목표
  - 2) 민속기록학의 범주
3. 민속기록학의 쟁점과 방법
  - 1) 기록론
  - 2) 보존론
  - 3) 활용론
4. 민속기록학이 제기된 배경
  - 1) 기록학에서의 요구
  - 2) 민속학에서의 요구
  - 3) 정보화 사회의 요청
5. 민속기록학의 과제
  - 1) 대학에서 민속기록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기반 조성
  - 2) 민속기록학의 사회적 실천과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
6. 맺음말  
부록(용어설명)

\* 한국민속기록보존소 소장, 주요 논저 :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2012), 「문화콘텐츠시대의 민속기록과 활용」(2010) 외 다수.

## [국문초록]

민속학과 기록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놓고 양자의 특기(特技)를 수렴하여 전문적인 학문체계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민속기록학’이다. 민속기록학이란 양자를 절충하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생활문화의 기록·보존·활용에 대한 전반적인 지식을 탐구한다. 민속기록학은 가족, 마을, 향토사회, 현대 도시사회의 각종 공동체를 전문적으로 기록하기 위한 전략이다. 그동안 기록학의 일부에서 민간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해 관심을 가졌으나 구체적인 실천방법과 경험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다. 반면 민속학에서는 공동체 문화에 대한 현장관찰이나 조사방법에 대해 경험과 지식이 있으나 기록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전략, 마음가짐이 부족하였다. 양자의 장점을 결합할 때 공동체의 기록화와 아카이브 전략은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으며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다.

**주제어 :** 민속학, 기록학, 민속기록학, 공동체 아카이빙, 공동체 아카이브

### 1. 머리말

2012년 5월 14일 한국외국어대학교 역사문화연구소 콜로키움에서 Terry Cook<sup>1)</sup>은 역사가들은 아키비스트(archivist)를 중요하게 인식하지 않거나 기록학을 학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향이 있으나 역사가 어디에서 만

---

1) 캐나다 매니토바대 기록학과.

들어지는가라고 할 때 기록에서 그리고 기록자에게서 온다는 것을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가령 5%를 남기고 95%를 없앨 때 아키비스트가 개입하여 결정을 하게 된다. 아키비스트가 이미 역사를 해석하고 판단한다는 것이다. 이때 아키비스트의 해석작용이 얼마나 역사에 큰 역할을 하는지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또한 그는 지금까지 문서, 사진, 디지털 기록 등도 보존, 선택에 있어 아키비스트가 결정하며 따라서 아키비스트는 수동적인 보관자가 아니라 역사를 전달하고 판단하는 중요한 위치에 있다는 것을 역사가들이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이러한 요지를 담은 그의 강연은 기록학과 아키비스트의 역할과 중요성을 되새기게 하였다.

공공기록물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에서도 아키비스트와 기록학의 역할은 중요하다. 민속학은 공동체(community)에서 일어나는 생활문화를 해석하고 기록하며 그렇게 축적된 자료를 생활사적으로 고찰하는 학문이다. 이것은 민속학에서 차지하는 기록의 중요성을 암시한다. 역사가들이 연구하는 사료가 아키비스트에 의해 걸러지는 것처럼 장기적으로 볼 때 민속기록전문가에 의해 축적된 민속기록지와 기록관(archives)의 자료가 민속학자들에게 중요하게 이용될 수 있다.<sup>2)</sup>

역사가들이 기록의 중요성을 통찰하지 못했던 것처럼 그동안 민속학자들도 기록이 그들의 학문발전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구체적으로 알지 못했다. 민속학자들은 민속이 소멸되니 기록해야 한다는 논리를 펼치기는 하였으나 대개 일시적인 프로젝트를 위한 명분이었지 구체적인 전략을 가지고 있거나 그에 합당한 결과물을 생산하는 것으로 귀결되지는 못했다.

더구나 근래에는 에릭 홉스봄<sup>3)</sup>이나 베네딕트 앤더슨<sup>4)</sup>과 같은 내서

---

2) 정보화 사회에서 민속기록지는 콘텐츠로서 가치를 갖는다. 이러한 정보를 원천 소스로 하여 이용자를 위한 다양한 활용(Multi Use)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3) 에릭 홉스봄, 박지향·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4) 베네딕트 앤더슨, 윤형숙 역, 『상상의 공동체』, 나남출판, 2005.

널리즘 비판이나 국가를 상상된 공동체로 보는 탈근대 역사학자들의 역사인식에 동화되거나 기록보다는 비평을 선호하는 사회과학의 영향을 받은 일부 학자는 민속기록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취하기도 한다.<sup>5)</sup> 일본인 학자 이와다케의 글을 소개해 본다.

민속학적 사고는 상실의 패러다임에 기초해서 지금 수집, 기록, 보존하지 않으면 민속은 근대화에 의해서 파괴되어 버린다는 초조감이 있었다. 그러나 문자를 가지지 않은 사회의 문화를 문자로 옮기고 민속이라는 틀에 넣어서 궁극적으로는 근대국가와 국가의식의 형성을 돕고 근대화를 목표로 하는 사회의 정치적 목적을 지탱해온 측면도 있다. 아이러니하게도 민속학은 민속의 붕괴자로 인식되어 있는 근대화의 과정을 이렇게 해서 지탱해왔다. 그것은 지방의 문화와 사람들의 균질화·표준화라는 민속학자를 한탄하게 만드는 현상도 산출해왔다…(중략)… 18세기에서 20세기에 걸쳐 세계 각국에서 지방의 민속을 국가의 문화로 변신시키는 작업이 진행되었다. 국가의 형태를 갖추고 근대국가가 근대국가답게 되기 위해서는 제공되어야 할 어느 정도의 항목이 있다. 확실하게 정의된 민속과 역사, 그것들을 수집, 연구, 보존, 전시하는 박물관, 혹은 국가(國歌)와 국기라는 상징은 그중에서도 중요한 항목이다.<sup>6)</sup>

위의 글은 민속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것이 밀려오는 근대화에 대한 상실의 패러다임에 기초한 산물이라고 하거나 구술성(orality)에 기초한 지방의 문화를 문자로 묘사하면서 표준화 시키는 문제, 그리고 이런 것이 근대국가 형성이라는 정치적 목적에 활용된다는 지적이다. 이와다

5) 김덕목,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한국민속기록보존소, 2011, 36쪽.

6) 岩竹 美加子, 『民俗學の政治性—アメリカ民俗學100年目の省察から』, 東京: 未來社, 1996, 38-39쪽.

케처럼 민속이나 문화재를 내셔널리즘과 연관을 짓거나 공동체의 정체성은 배타성을 낳는다고 보는 사람도 있다. 또한 기록에 특정 권력이 달라붙거나 힘을 가진 자의 기록이 될 수 있음을 경계한다.

기록과 권력의 문제는 기록학에서도 지적되고 있는 바이며<sup>7)</sup> 그렇기 때문에 기록의 민주주의가 요청된다. 또한 정체성은 자아에서부터 집단에 이르기까지 반드시 필요한 것이며 지나쳐서 배타성에 이르게 된다면 문제가 되지만 정체성 자체가 문제가 될 이유는 없다. 아울러 이와다케가 지적하는 근대 국민국가 형성기의 민속수집의 명암은 그 시대의 산물이다. 오늘날 민속학이나 기록학은 변했고 진화되어 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상황도 달라졌다.

지금 민속은 정보화 사회에 기초한 지식체계이며 문화산업을 위한 콘텐츠이며, 다양성과 개성을 존중하는 세방화 시대에 각 공동체(communitiy)를 근거로 하는 자기표현의 수단이다.<sup>8)</sup> 현대 기록학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며 기록은 전제주의나 특정 권력을 관철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투명한 행정, 만민에게 알 권리를 보장하는 장치로서 사회정의의 구현에 있다. 기록은 어떠한 권력이나 힘에 의해 좌지우지되어서는 안 되며 있는 그대로를 밝히는 수단이어야 한다. 민속기록은 내셔널리즘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동안 기록의 주류에서 소외된 변방에 대한 관심

---

7) COX는 기록에 있어 관련될 수 있는 많은 종류의 힘을 경계하였다. RECHARD J. COX, "The archivist and community", Community archives—the shaping of memory, London: Facet Publishing, 2009, p.259.

8) 기록학과 민속학, 정보화 사회는 민속기록에 대한 체계적인 이론과 전략을 요청한다. 디지털 환경에서는 다양한 요구와 목적을 가진 이용자들의 탐색을 위해 더 넓고, 더 많고, 더 깊이 기록된 정보들이 요청된다. 중심에서 변방으로, 지배층에서 민중으로, 정치사에서 민속사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거시에서 미시로, 주류에서 비주류로, 공공에서 민간으로, 집단에서 개인으로까지 더 넓고, 자세한 기록정보가 경쟁력을 가질 수 있으며 사회적 요구에 부응할 수 있다. 민속기록의 강조나 민간영역의 아카이빙에 대한 구호만 연발하거나 설계단계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된다. 민속기록학을 통해서 우리는 구체적인 전략을 짜고 실천해야 한다.

이며 소수자에 대한 관심을 아우르며 기록문화 속에서 만인이 균등한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실천이다.

디지털 환경은 민속기록학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의 특성을 지닐 수 있다. 즉, “디지털 테크놀리지는 문화의 생산, 유통, 소비에 변형이 일어나고, 과정에서 과거에 주류라고 여기던 문화와 비주류 문화의 경계 파괴(blurring line)를 가져왔다. 디지털은 미디어 문화 생산의 도구를 특정 생산자 그룹에서 모든 사용자에게 주었고, 디지털 미디어의 개인적, 사회적, 국가적 사용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왔다.”<sup>9)</sup> 아날로그 사회가 이성적 사고, 엘리트 문화, 문화와 산업의 분리라면 디지털 사회에는 감성적 선택, 참여주의 문화, 문화산업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sup>10)</sup> 이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Social Network Service)를 통해서 자유로운 의사소통이 이루어지고 다양한 의사교환과 공론이 분출되며 소수의 사람이 독점하는 여론이나 수직적, 일방적 정보의 주입은 쌍방향으로, 수평적으로 바뀌고 있다. 민속기록학은 공동체 간의 수직적 위계나 불평등을 거부하며 정보의 바다 속에서 저마다의 개성을 마음껏 쏟아낼 수 있도록 한다.<sup>11)</sup> 이제 민속기록학이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

9) 권상희, 『디지털 문화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42쪽.

10) 권상희, 『디지털 문화론』, 51쪽.

11) 인류의 역사에서 기록은 주로 지배층의 전유물이었다. 민속기록학은 위계나 계급적 시각을 버리고 모든 공동체를 동등하게 취급한다.

## 2. 민속기록학의 정의와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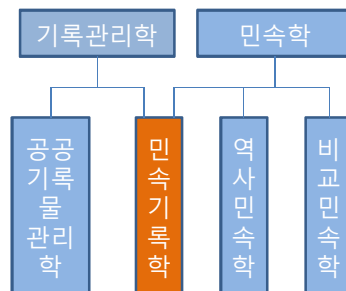
### 1) 민속기록학의 개념과 목표

#### (1) '민속기록학'의 용어

용어 선택에 있어 기록관리학과 민속학은 입장차가 있을 수 있다. 필자는 '민속기록학'이라고 할지, '기록민속학'이라고 할 것인지에 대해 고민했다. '기록민속학'이라고 할 때는 민속학의 일부, '민속기록학'이라고 할 때는 기록학의 일부라는 뉘앙스(nuance)가 있다. 따라서 기록학을 하는 사람은 '○○기록학', 민속학을 하는 사람은 '○○민속학'이라는 표현을 선호할 수 있고 학문적 입장에 따라 논쟁이 될 수 있다. 필자는 어감상 '민속기록학'이라는 말이 자연스러워서 이렇게 표현하기를 했으나 어느 한쪽에 무게를 두지는 않았다. 비록 민속기록학이 '민속학과 기록학'이라는 두 개의 뿌리에서 기인하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두 학문을 변증법적으로 결합시킨 제3의 영역으로서 독자성도 모색할 수 있다. 물론 현재 독자적인 학문분야로서 존재할 수 있는 토대는 미약하며 두 학문속에서, 즉 역사민속학, 비교민속학과 같이 민속학의 하위분야로 자리할 수 있고, 기록학의 하위분야로서 '공공기록물관리학'과 함께 '민속기록학'이 위치할 수 있다. 따라서 여기서 말하는 '학'이란 독립적인 학문분과라기보다는 어떤 학문분야의 한 갈래를 지칭하는 의미로 사용된 것이다.

한편 민속기록학은 생활문화의 기

<그림 1> 민속기록학



록·보존·활용을 중점적으로 다루는 분야라는 점에서 ‘민속기록보존학’, 혹은 ‘민속기록관리학’이라고 할 수도 있다. ‘민속기록보존학’이라고 하면 문화재학과 같은 느낌이 있고 ‘민속기록관리학’이라고 하면 기록관리학적인 감이 있다. 앞으로 이 분야가 발전하게 되면 명칭은 다양하게 사용될지 모른다. 그러나 연구대상과 목표는 크게 달라지지 않는다.

## (2) 민속기록학의 개념과 목표

민속기록학은 민속학과 기록학의 결합을 바탕으로 한다. 양자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소통할 수 있는 인자를 가지고 있다. 기록에 대한 관심, 문화유산에 대한 관심, 역사인식, 게다가 기록학계에서 부각되고 있는 민간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에 대한 관심은 양자의 거리를 좁히고 있다. 공동체(community), 구술성(orality), 전승지식(lore), 민중(folk), 민중의 생활문화는 물론 이러한 것에서 파생되는 정체성(identity), 민주주의(democracy), 거버넌스(governance)에 이르는 관념적인 측면까지 양자는 얼마든지 소통할 수 있다. 기록관리학이 민간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를 인식할 때 민속학에서는 새삼스러운 것이 아니었으며 일상적으로 민간영역과 공동체 문화를 조사하고 기록해오고 있었다. 한편 기록관리학적 마음가짐이나 시야로 말미암아 민속학에서는 자기들이 하는 일의 가치를 새롭게 인식하고 보다 큰 틀에서 전략을 가지고 기록문화운동의 대열에 동참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양자의 결합은 서로를 이롭게 하며 그렇게 탄생되는 ‘민속기록학’은 양 학문의 발전은 물론 정부나 지자체,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공동체 기록화사업 및 아카이브 활동에 상승효과가 크다. 양자의 공유점을 도표로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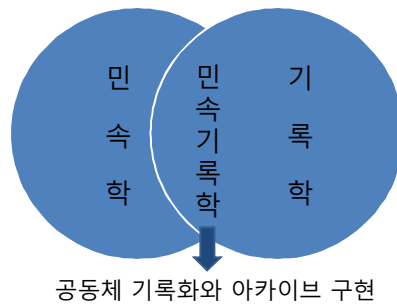
<표 1> 기록학과 민속학의 공유와 소통

기록학 / 민속학, 공유와 소통이 가능한 것		비고
기록의 공간	공동체	기록학은 민간영역의 기록과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심, 민속학은 공동체를 기반으로 하는 민속의 기록보존 활용에 관심
기록대상(민속)	구술문화 (구술사)	양자는 문자 밖의 문화(orality)에도 관심
	전승지식	공동체 내의 전승지식에 관심
	생활문화	공동체 내의 생활문화에 관심
기록의 관심영역	민간	지배문화나 주류문화 밖의 주변부에도 관심
기록의 관념적 지향	정체성	공동체의 정체성에 관심
	민주주의	투명한 기록문화를 통한 민주주의에 관심
	거버넌스	民·官의 협력적인 문화정책과 참여민주주의 지향

근래에 역사학계에서는 일상사, 생활사, 구술사에 대한 관심이 확대되었고 기록학계에서도 이러한 분야에 관심이 증대되고 있지만 이런 것은 민속학의 본질적 요소이다. 특히 이러한 것은 주류문화로부터 밀려나거나 주변부적인 것으로 취급되었으나 기록학계에서 주목함에 따라 민속학과 기록학의 거리는 한층 가까워질 수 있게 되었다.

여기에서 민속학과 기록학이 공유할 수 있는 것을 중심에 놓고 양자의 특기(特技)를 수렴하여 전문적인 학문체계로 만들어보고자 하는 것이 ‘민속기록학’이다. 즉, ‘민속기록학’이란 양자를 절충하여 공동체에서 일

<그림 2> 민속기록학의 목표



어나는 생활문화에 대한 기록·보존·활용의 방법을 체계적으로 연구하는 학문이다. 따라서 민속기록학은 공동체의 기록화나 아카이브와 같은 공동체의 기록문화운동을 선도하며 공동체의 정체성, 민주주의, 거버넌스와 같은 이상을 추구한다.

이상(以上)을 종합하면, 민속기록학의 의도는 민속학의 생활문화 연구 및 조사 방법과 기록관리학적 소양을 결합하고 발전시켜 그것으로써 공동체의 아카이빙과 아카이브, 민간기록, 생활문화기록 등에 체계적으로 접근하자는 것이다. 그동안 이러한 학문체계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민속학에서는 생활문화의 기록과 연구가 심화되지 못했으며 기록학에서는 민간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기록화 논의가 있었으나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찾지 못했다. 게다가 국가기록원의 민간기록물의 수집이나 조사,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문화재청의 민속종합조사사업이나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기록화사업,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지역 생활문화자료조사사업, 각 지자체의 향토문화 기록화사업, 마을지사업 등에서 전반적으로 아마추어리즘<sup>12)</sup>이 난무하며 체계적인 방법이나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였다. 이러한 기존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대두된 학문체계가 ‘민속기록학’이다.<sup>13)</sup>

## 2) 민속기록학의 범주

민속학은 ‘기록’이라는 측면에서 기록학과 만날 수 있고 기록학은 ‘민간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민속학과 만날 수 있다. 민속기록학

---

12) 기록화에 대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전략이 부족하며 따라서 기록의 밀도성, 기록지로서의 요건(메타데이터 등)이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음.

13) 민속기록학 교육이 지향하는 것은 이러한 것을 다루는 실무에서 전문성을 발휘하고 이 분야를 학문적으로 심화시킬 수 있는 민속기록전문가(민속아키비스트) 양성에 있다. 이들 전문가들은 앞에서 제시한 분야나 기관에서 전문지식을 발휘하며 성숙한 기록문화를 꽃피게 할 것이다.

은 민속학에서 연구대상으로 하는 ‘생활문화’와 기록관리학에서 제기되는 ‘민간영역’의 기록을 아우른다. 민간영역의 기록이라는 것도 곧 인간의 삶의 자취로서 민속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러한 것은 ‘민속’으로 통합될 수 있으며 문화유산으로서 미래적 가치를 가진다. 민속학은 생활문화에 대한 해석학이자 기록학이며 역사학이라는 성격을 강하게 내포하고 있는 학문으로써 기록관리학과의 교류를 필요로 하고 있다.<sup>14)</sup>

양자의 절충을 통해 공동체 기록에 있어 전문성을 극대화시키려는 민속기록학은 공동체 아카이빙과 아카이브를 주된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것에 대한 기록·보존·활용을 탐색한다. 따라서 기록론·보존론·활용론은 민속기록학의 연구방법과 이론의 중심적인 쟁점이다. 민속기록학은 이러한 연구대상과 방법을 중심으로 공동체(community)의 기록화와 아카이브의 활성화를 위한 지식을 탐구한다. 이것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표 2> 민속기록학의 연구분야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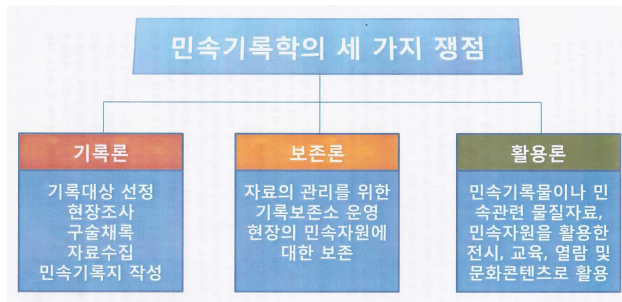
연구분야	공동체 아카이빙과 아카이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마을기록화와 마을기록관(maul archives)</li> <li>• 향토기록화와 향토기록관(regional archives)</li> <li>• 현대사회의 각종 공동체 기록화와 공동체 기록관</li> <li>• 가족의 기록화와 가족기록관(family archives)</li> </ul>
	기록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기록과 현장조사 방법 - 기록대상 선별과 현장조사 방법</li> <li>• 구술성(orality)과 기록 - 구술채록, 생애 및 생활사의 구술사적 접근</li> <li>• 민속기록물 수집 - 문헌자료, 물질자료, 영상자료의 수집</li> <li>• 민속기록지 작성법 - 자료의 정리 및 분석을 통한 민속기록지 작성</li> <li>• 영상민속기록지 제작법 - 영상매체를 통한 민속기록지 작성</li> </ul>
연구방법	보존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자료의 보존방법 - 현장의 민속자료에 대한 보존</li> <li>• 기록보존소의 운영과 관리 - 기록관의 운영과 관리에 대한 방법</li> </ul>
	활용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민속의 활용방법 - 민속활용을 위한 다양한 방안</li> </ul>

14) 김덕목,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364쪽.

### 3. 민속기록학의 쟁점과 방법<sup>15)</sup>

민속기록학은 공동체 내의 민간영역에 속하는 제반적인 요소, 즉 생활문화를 어떻게 기록하고 보존하고 활용할 것인가에 관심이 집중된다. 민속기록학의 발전은 이것에 대해 얼마나 전문지식과 방법론을 가지고 있는지에 달려있다.

<그림 3> 민속기록학의 쟁점



#### 1) 기록론

##### (1) 기록대상 선정

여기에서는 자료의 수집과 기록화 전략이 고민되어야 한다. 지역 아카이빙, 마을 아카이빙, 기록관 설립 등 연구의 성격에 따라 범위, 대상, 일정은 달라진다. 기록을 계획할 때는 나름의 매뉴얼을 만들고 그것에 맞추어 추진해나가겠지만 무엇을 기록할 것인가부터 고민이 된다. 기록대상을 주제에 따라 분류하여 그것을 중심으로 한다고 해도 그 안에

15) 여기에서는 간추려서 논의하고 상세한 서술은 다른 기회를 갖도록 한다.

서 소분류를 어떻게 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누락시켜야 하는지를 고민해야 한다. 공동체에서 즉, 지역 아카이빙, 마을 아카이빙, 어떤 단체에 대한 아카이빙을 하더라도 소분류를 통해 기록대상을 선별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공공기록물이 기록물보존소로 이관될 때 취해지는 평가과정과 비교해 볼 수 있다. 공공기록물에 있어서는 역사적 가치나 현용·준현용 가치가 없는 문서들은 폐기된다.<sup>16)</sup> 역사적 가치에는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연구를 위한 가치 등 미래에 활용될 수 있는 문서의 가치를 고려한다. 공공기록물에 있어서는 기록관으로 문서를 이관할 때, 평가작업이 중요시되지만 민속기록에서는 기록단계에서 무엇을 기록할 것인지에 대한 선별작업이 요구된다. 공공기록물에 있어 모든 문서를 보관할 수 없듯이, 민속기록에서도 모든 것을 기록할 수는 없다. 예산, 시간, 인력 등도 고려해야 한다. 민속기록에서는 기록을 설계하는 단계에서 선택작업을 하게 되며 행정적 가치나 법적 가치와 같은 현용적 가치보다는 미래적 가치를 평가기준으로 삼는다. 즉, 미래를 위해 기록보존되어야 할 가치를 평가해야 한다. 문화유산적 가치, 역사적 가치, 증거적 가치, 정보적 가치, 연구를 위한 가치 등이 척도가 된다.

## (2) 현장에서의 기록화

기록대상을 선정하고 나면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 단계에서는 기록물이나 기타 자료의 수집, 현장조사, 관찰, 구술채록 등 기록화에 관한 구체적인 방법이 고민된다. 대상 범위나 주제에 따라 다양한 방법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다른 기회에 상세히 다루도록 한다. 민속기록학에서 기록방향은 미래의 활용가치를 높이 평가하기 때문에 상세한 기록화가 요구된다. 또한 풍부한 민속지식이 담보될수록 높이 평가될 수 있다. 민속기록에서는 기록화를 설계할 때도 기록대상

---

16)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아카넷, 2007, 60쪽.

에 대한 선택작업을 해야 하지만 기록화 후에도 평가되어야 한다. 기록화를 통해 생산된 기록지가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심층적으로 작성되었는지, 관련 민속지식들이 제대로 담겨있는지 등을 평가해야 한다.

민속기록에서는 기록대상의 선별이나 생산된 민속기록지에 대한 평가나 어떻게 기록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에 있어서 '미래적 가치'가 척도가 된다. 또한 이러한 맥락에서 증거성과 맥락성, 전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가령 마을 아카이빙에 있어서 마을의 모든 것을 다 기록할 수는 없다. 선별해야 한다. 이때 공공기록물의 평가방법에서 제기되는 거시평가와 미시평가를 응용해 볼 수 있다. 즉 마을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들만 기록할 것인가. 아니면 미시적 평가처럼 각각의 요소들 상호 간의 유기적인 관계망 속에서 그런 맥락을 살리는 기록을 할 것인가를 숙고해야 한다. 물론 실제 기록단계에서는 양자를 융합하여 민속기록전문가가 신중적으로 해야겠지만 나무와 숲을 고루 조망하여 전모가 잘 드러나게 기록해야 한다. 기록대상의 선정뿐만 아니라 기록방법에 있어서도 '전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수많은 것을 다 기록할 수 없고 수집할 수도 없다고 할 때 우리는 지역의 특성, 혹은 대상의 일반적 성격 등을 담보할 수 있는 전형성을 고려해야 한다. 극히 예외적인 것이나 특정한 측면에만 몰두하면 안 된다. 균형적인 시각을 가져야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측면 혹은 다양한 대상, 다양한 사람의 사례를 통해 간주관성(intersubjectivity)을 찾는 것이 필요하다. 민속기록은 인간의 경험세계를 주로 구술성(orality)에 의지하여 기록한다. 구술대담을 통해 추출된 대담자들의 다양한 사례에서 특수성과 일반성을 찾고 이러한 과정을 통해 민속지식이나 행위자들의 관념을 도출한다.

### (3) 민속기록지 작성

현장조사가 끝나면 모아진 자료를 분석하여 민속기록지를 작성한다. 민속기록지는 현장에서 도출된 자료를 모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

한 후 일정한 양식<sup>17)</sup>에 맞추어 기술(記述)한 것이다. 훗날 이것을 이용하는 독자들을 위해 민속기록지 작성은 조사자의 관점과 피조사자의 관점을 분명히 구분해서 서술하고 최대한 객관성을 견지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이용자의 입장에서 친절한 설명과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도록 배려해야 한다. 민속기록지가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독자들이 현장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가급적이면 상세히 기술해야 하며, 보고서가 가져야 할 6하원칙(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sup>18)</sup>과 기타 자료의 맥락을 알 수 있는 메타데이터를 첨부해야 한다.

민속기록지는 ‘조사보고서식’과 ‘논문형식’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전자는 조사된 내용을 가급적 그대로 담아내어 분석부분에 비해 서술부분이 많이 할애될 수 있다면 후자는 형식과 분량이 논문에 준해야 하기 때문에 분석부분의 비중이 확대되고 서술부분은 전자에 비해 감소한다. 전자가 기록보존소의 소장자료로 이용된다면 후자는 연구자의 학문적 수단인 논문으로 이용된다.

전자는 기록화 과정에서 생산된 녹음 및 영상자료, 기타 수집자료 등을 텍스트 자료와 함께 기록보존소에 소장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반면, 후자가 일반에 공개되는 것은 주로 텍스트 자료이다. 또한 전자가 일반적으로 공동체 아카이빙과 같은 프로젝트에서 행해진다면 후자는 주로 대학의 기록관리학과나 민속학과 학생, 연구자들의 학위논문이나 학술활동의 수단으로 이용된다. 그러나 전자라고 하더라도 후자와 같이 일정한 양식을 갖추어야 하며 후자라고 해도 일반적인 학술논문과 같이 분석부분에만 치우치면 안 된다.

민속기록지는 ‘상세하게 서술한 부분’을 잘 살려야 한다. 그렇게 할 때 민속기록지의 성격이 담보될 수 있다.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층위

17) 민속기록지의 양식에 대해서는 별도의 글을 통해서 밝히겠다.

18) “조사의 내용에 따라서도 조사방법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데, 대체로 내용에 대한 ‘6하원칙’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지고 또한 보고서가 작성되어야 한다”,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143쪽.

가 다양할 수 있다. 필자의 연구를 예로 들면 줄고 「현대도시사회에서 무속용품의 유통에 대한 현지연구-성남의 만물상을 중심으로-」<sup>19)</sup>는 분석부분이 두드러지는 반면, 「성남지역의 가신신앙에 대한 민속지적 연구」<sup>20)</sup>는 장황한 서술부분이 두드러진다.<sup>21)</sup> 연구의 목적과 대상, 성격 등에 따라 민속기록지에서 서술과 분석부분의 역학관계는 다층적이겠으나 어느 것이든 서술과 분석에서 한쪽이 일방적으로 무시될 수는 없다. 민속기록지에서 분석은 기록자의 설명과 의견을 첨부하는 것으로 메타데이터의 일종이라고 볼 수 있다.

#### (4) 민속기록지에 대한 평가

기록화 작업을 거쳐 민속기록지가 작성되면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엄격한 평가작업이 배제되면 민속기록지는 내실성이 감퇴된다. 민속기록지를 평가할 때는 기록대상 선정과 접근방법이 제대로 이루어졌는가,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하게 기록되었는가, 메타데이터와 6 하원칙이 잘 지켜졌는가, 민속기록지의 내용을 신뢰할 수 있으며 심층적으로 이루어졌는가, 민속지식이 제대로 담지되고 있는가 등이 검토되어야 한다. 조사보고서식 민속기록지는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관련기관에서 평가작업을 하고 필요에 따라 보완작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학술논문을 목적으로 하는 민속기록지도 민속기록학적 시각에서 적절한 논문심사를 통해 피드백(feedback)이 이루어져야 한다.<sup>22)</sup>

19) 김덕목, 「현대도시사회에서 무속용품의 유통에 대한 현지연구-성남지역의 만물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

20) 김덕목,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287-360쪽.

21) 물론 이 글들이 전적으로 민속기록지를 목적으로 작성되었다고 볼 수는 없으나 필자의 내면에서 민속기록지를 갈구하는 마음이 없지는 않았다. 또한 아직 민속기록학에서 전문적인 민속기록지들이 배출되지 않은 상황에서는 이러한 글을 선행사례로 참고할 수 있겠다.

22) 이러한 일을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민속기록학회의 창립과 민속기록을 중심으로 하는 학회지가 발간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된다면 민속기록학이 크게 발전

<표 3> 공동체 기록화의 과정

단계	내용
기록대상의 선별	선택과 배제 ※ 선택 시 고려사항 증거성, 맥락성, 전형성 ← 민속기록전문가의 가치판단이 중요
현장에서의 기록화	현장조사, 구술채록, 자료수집 ※ 기록 시 고려사항 미래의 활용성,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상술
민속기록지 작성	자료의 정리 및 분석을 통한 민속기록지 작성 ※ 기록지 작성 시 고려사항 객관성, 메타데이터와 6하원칙, 상세한 기록, 이용자의 입장
민속기록지에 대한 평가	앞에서 제시한 요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평가 ← 조사보고서식 민속기록지는 프로젝트를 주관하는 기관에서, 논문형식의 민속기록지는 논문심사를 통해 피드백을 요청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기록화사업은 그것을 시행하는 기관마다 늘 기록의 당위성을 표방했지만 막상 사업을 통해 도출된 결과물을 보면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 때로는 사업을 수행하는 사람들이 기록에 대해 진정성을 가지고 있었는지 의구심이 들기도 한다. 어쩌면 방법과 전략이 부족했다고 볼 수도 있다. 민속기록학과 같이 구체화된 기록화 전략과 방법을 가지고 있는 학문이 이전에 있었다면 그동안의 기록화사업은 한층 내실 있게 진행되었을 것이다. 이제 민속기록학으로 새로운 전환기를 마련해야 한다.

“세밀한 기록을 할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볼 수 있다는 것이고 학문의 심화도가 깊다는 것을 의미한다.”<sup>23)</sup> 따라서 밀도 있는 기록이란 밀도 있게 기록하자는 구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록대상을

할 수 있다.

23) 김덕목,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365쪽.

밑도 있게 볼 수 있는 시야가 있어야 한다. 기록자 자신이 지니는 기록 대상에 대한 심화된 이해와 학문적 자질을 전제로 한다. 그동안 국가기관에서 이루어진 기록화사업이 가지는 난제 중 하나는 기록자들의 자질과 능력이 검증되지 않았으며 제대로 전문성이 요구되지도 않았다는 점이다. 기록화사업이 만약 어떤 교수에게 주어지면 대개 석사과정 학생들에 의해 조사가 이루어졌다. 각 기관에서 기록화사업을 할 때도 현장조사를 다니는 사람은 대개 학문적인 연륜이 낮은 사람들이다. 또한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이 결여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에는 민속기록전문가가 조사원들에게 충분한 사전지식을 습득시키는 교육과정이 있어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이 조사현장에 투입되고 있어 최종결과물도 신뢰성이 떨어진다. 게다가 전체 사업을 기획하는 책임자도 해당분야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다보니 조사를 하는 사람이나 조사를 기획하고 총괄하는 사람 모두가 비전문성을 드러내고 있어 문제는 심각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훈련된 민속기록전문가가 양성되고 그들이 국가기관에서 담당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 2) 보존론

보존이란 미래에도 지속가능하도록 관리하는 것이며 이것은 활용을 염두에 둔 것이다. 그동안 기록관리학에서 보존이란 공공기록물의 관리에 대한 관심이었다. 민속학에서는 도시화·산업화로 인해 급격히 소멸되어 가는 전통적인 생활문화의 보존에 관심을 두었다.<sup>24)</sup> 따라서 ‘보존’이라고 할 때 민속학의 경우에는 민속의 보존을 떠올릴 수 있고 기록관리학의 경우에는 기록물에 대한 합리적인 관리의 측면을 상기하게 된다. 민속기록학에서는 양자의 경우를 수렴하여 보존문제가 고민

24) 주로 과거의 흔적이 지워지는 것을 우려해 증거성, 미래적 가치, 활용, 공동체의 정체성 등을 고려하여 일정부분 남겨두는 것에 관심을 가졌다.

되어야 한다. 따라서 공동체에 있는 다양한 민속자원의 보존문제와 기록보존소의 운영과 관리 등이 함께 고민되어야 한다. 또한 전자와 후자가 별개의 문제로 취급되기보다는 양자가 공동체의 정체성을 담보하고 문화자원으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연계될 필요가 있다. 가령 공동체 내에 있는 민속자원을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파악하고 분포현황을 지도화(mapping) 해놓고 지역주민과 협력하여 관리할 필요가 있다. 지역 기록관인 경우, 기록관 내의 자료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관할에 있는 민속자원도 돌보아야 한다.

### (1) 민속자원의 보존

민속기록학에서는 인간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문화재이자, 기록물의 관점에서 본다. 고인들은 고대인의 생활을 말해주는 기록물이자 문화재이며 마을 뒷산에 있는 선산은 그 마을을 앞서 살다간 사람들의 증거물이자 기록물이다. 그러나 기록의 문제에서처럼 보존의 문제에서도 ‘선별’을 해야 한다. 무엇을 보존할 것인가, 주요한 것만 보존할 것인가, 다양한 맥락을 알 수 있도록 많은 것을 보존할 것인가. 그동안 우리의 문화재 보존은 지배계급의 유물에 집중되었다. 민속기록학에서는 다양한 계층과 집단의 모습을 담보할 수 있는 고른 선택이 필요하다.<sup>25)</sup>

보존대상의 선별과 함께 보존방법도 선택해야 한다.<sup>26)</sup> ‘현장보존’, 즉

25) 이러한 자원으로 고택, 동제당, 선산, 시장터, 추억의 기차역, 역전 골목, 기도터, 우물, 빨래터, 제사유적, 보호수, 동제, 안택고사, 줄다리기, 민속놀이, 화전놀이, 세시풍속, 화로, 다듬이돌, 맷돌, 고가구, 지명 등 유·무형의 다양한 형태와 종류들이 포함되며 이러한 것은 공동체의 정체성을 말해주는 코드이자 민중생활사를 대변하는 자료이기도 하다.

26) 건설공사 안에 포함된 문화재의 처리는 대체적으로 사업지구에서 제척하는 방법(제척), 사업지구내에 포함시키되 공원이나 녹지에 포함시키던가 하여 보존하는 방법(현상보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여 보존하는 방법(이전보존), 발굴조사 등을 실시하여 기록을 남기는 방법(기록보존)이 있다. 김희태 외 2인, 『문화

민속이 존재하는 그곳을 보존하는 방법이다. 과거의 모습을 그대로 담고 있는 거리, 마을, 민가, 동계당, 상여집 등을 현장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다. 이러한 곳은 주변을 잘 다듬어서 공원을 만들어도 된다. 현장 보존이 어려운 경우 ‘이동하여 보존’하는 방법이 있다. 수몰지역의 민가를 민속촌으로 옮기거나 강원도 산간지역에 있는 폐가(廢家)를 박물관이나 기록보존소에 옮겨놓을 수도 있다. 민구와 같은 것은 그것이 사용되고 있는 곳에 남겨두는 것이 이상적이겠으나 부득이 한 경우에는 마을기록관이나 향토기록관으로 옮겨놓아야 한다. 이동보존에서 유의할 점은 원래 있던 곳에서 가까운 기록관으로 옮기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지역을 증거하기 위해서는 최대한 가까운 곳에 위치하는 것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무형민속유산의 ‘전승보존’도 고려해야 한다. 무형의 민속이나 민속 지식은 행위자들이 자체적으로 그 집단에서 전승시킬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에 특정한 외부인(주로 젊은 세대)에게 전수교육을 시키는 방법도 있다. 즉, 주민들이 민속놀이나 세시풍속을 유지할 수 있도록 권장하고 지역문화재 지정과 같은 방법으로 보존시키는 방법도 있고 광명시 아방리의 경우와 같이 인근에 있는 충현고등학교 학생들에게 농요와 풍물 등을 전수시켜 대를 잇게 하는 방법도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에서 동아리를 통해서 이런 것을 배우고 대학에서도 전통예술을 전공한 후 주민들이 공연을 할 때 함께 참석하는 경우도 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든 많은 민속예술이 존재하는데 상당수의 지역에서 방치되고 잊혀져가고 있다. 광명시에서는 몇 사람이 앞장서서 노력하여 보존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인의적인 보존노력이 필요하다. ‘기록보존’도 있다. 기록보존은 다른 보존방법과 병행되기도 하고 다른 보존방법이 불가능할 때는 부득이 기록보존으로만 자료를 남길 때도 있다. 가령 현장보존이나 이전보존 등이 쉽지 않은 어떤

---

재학 이론과 실제』, 향지사, 1998, 83쪽.

대상물은 그것이 위치한 장소가 다른 용도로 변경됨에 따라 영원히 사라질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된다. 또한 부득이 전승보존이 어려운 무형의 민속이나 민속지식도 있다. 이러한 것은 꼼꼼한 기록보존이 이루어져야 한다. 공동체 내의 자원들이 잘 보존되고 관리되는지 보존의 문제에서도 ‘평가작업’이 요구된다. 민속기록학에서는 보존관리를 잘하는 공동체의 사례를 알리고 특정 공동체가 이런 것을 잘하고 있는지 해당 공동체 아카이브의 업무평가를 할 때 이런 점을 고려해야 한다.

## (2) 기록보존소의 운영과 관리

보존은 a) 원래의 모습을 보존하는 방법, b) 시대의 흐름에 따라 변화의 물결을 거부하지 않는 보존, c) 형태나 전승현장은 사라졌다 해도 언제든 재구성이 가능한 기록물을 남겨놓는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원래의 모습을 잘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시대가 흐른 후에도 애초의 모습을 볼 수 있다는 것은 오랜 시간이 지난 후에 가지는 역사성, 증거성, 시대성 등 다양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있는 그대로를 보존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b)와 같이 애초의 모습을 고수하지 않고 변화의 흐름을 거스르지 않는 것은 시대에 따른 민속의 전승양상과 변화상을 볼 수 있다. a)와 b)의 사례가 함께 있다면 민속의 통시적 고찰에 유용하다. c)는 철저하게 기록보존이 되어 있을 때를 말한다. 승례문이 화재로 원래의 모습이 사라졌다고 해도 철저하게 기록해 놓은 도면, 사진자료 등을 통해서 재구성이 가능하다. 민속기록에 있어서는 전승물과 전승현장을 보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이 소실되었을 때를 대비하여 철저하게 기록보존하는 것도 중요하다. 현장을 보존하지 못한다면 ‘기록보존’이라도 철저하게 해두어야 한다.

기록보존은 재구성이 가능할 정도로 상세히 기록한 후 그것을 언제든지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다. 기록과정에서 수집된 자료나 생산된 민속기록지, 멀티미디어자료도 미래적 가치가 크기 때문에 안전하

게 보존해야 한다. 현장에서 보존하기 어려운 자료나 현장에서 수집되고 기록된 자료, 기록물 등은 일정한 시설이 갖추어진 기록보존소에서 관리해야 한다. 이러한 보존소는 지역사회의 공동체 아카이브로서 공공의 이익을 위해 사용될 수 있다.

<표 4> 공동체 아카이브의 민속자원 보존

단계	내용
보존대상의 선별	현장의 민속자원에 대한 보존과 기록보존소의 운영 및 관리 ※ 선별에서 공동체의 정체성을 중요하게 고려
보존방법	현장보존, 이동보존, 전승보존, 기록보존 ※ 민속기록전문가가 기록보존소뿐만 아니라 지역주민과 연계하여 현장의 민속자원도 체계적으로 관리
평가	앞에서 제시한 요건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전반적인 평가 ※ 주기적인 평가와 모범사례에 대한 정보교류

### 3) 활용론

#### (1) 민속의 활용가치

기록과 보존, 활용은 상호 의존적이며 순환적 관계 속에 있다. 기록과 보존이 전제될 때 활용이 가능하지만 활용성이 있을 때 기록과 보존도 탄력을 받는다.<sup>27)</sup> 오늘날과 같이 급속하게 도시가 팽창되고 이미 상당한 도시화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에게 민속의 활용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게 대두된다. 2000년 이후 우리사회에는 문화콘텐츠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민속과 생태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주어지기 시작했다. TV에서도 '1박 2일'과 같이 향토를 찾아가는 프로그램이 인기를 얻게 되고

27) 김덕목, 「문화콘텐츠 시대의 민속기록과 활용」, 『비교민속학』 제43집, 비교민속학회, 2010, 285쪽.

농촌체험프로그램, 향토음식에 대한 관심 등 전통적인 생활양식, 환경, 생태 등에 대한 관심이 부쩍 늘었다. 1990년대에만 하더라도 이러한 프로그램이 방영되었다면 인기를 얻기 힘들었을 것이다. 그만큼 현대인의 삶은 도시화 되었으며 전통적인 농경생활, 환경, 생태 등과 멀어졌음을 반증한다. 지난날의 삶의 자취, 우리를 되돌아보게 하는 자화상은 마냥 시간의 흐름 속에서 사라져가는 것이 아니라 자원으로써 현대인의 삶을 풍요롭게 한다. 역사의 수레바퀴 속에서 현재와 미래의 의미와 방향을 탐지할 수 있듯이 지난날의 삶의 자취는 그 이후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영감과 안정, 휴식을 주는 자원이 된다.

민속기록학에서는 이러한 지난날의 기억과 삶의 자취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해 주목한다. 물론 민속은 현재도 행해지는 진행형이지만 당대의 민속이 당대에 곧바로 주목받기는 힘들다. 당대의 일상 속에 존재하는 것은 a) 과거에서부터 누적되어 전승되어 오는 것, b) 현재의 사회적 환경 속에서 생성된 것, c) 앞의 둘이 혼합된 것이 있는데 시간의 층위가 쌓여감에 따라 과거의 것은 비록 ‘신식’에 의해 밀려나는 ‘구식’이 되지만<sup>28)</sup> 그것은 한편으로 공동체의 기억과 정체성을 말해주는 코드로서 문화적 가치를 가진다. 현재 국립민속박물관 야외마당에 조성된 1960~1970년대의 골목 안 풍경이나 김기찬이 촬영한 서울 달동네의 골목 사진<sup>29)</sup>은 추억의 공간이자 기록물로서 활용된다. 당시에는 그 저 삶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것이었으나 시간이 지나고 그런 것이 일상에서 사라져 감에 따라 과거를 보여주는 자원이 된다.

---

28) “생활문화를 구식이나 신식으로 구분할 수 있거나, 또한 그것들이 함께 공존할 수 있다는 점이 바로 생활문화가 역사적으로 형성되어 변화된 소산물임을 나타내 주는 것이다”, 장철수, 앞의 책, 81~82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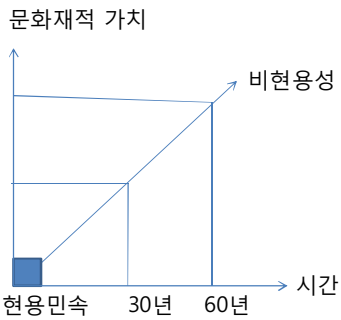
29) 김기찬, 『골목안 풍경 전집』, 눈빛, 2011.

<그림 4> 국립민속박물관에 조성된 옛 거리



일상에 널리있는 모든 민속은 민속자원으로써 잠재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그것은 한 세대를 경과하는 30여 년이 지나면서 민속문화재적 가치로 상승한다. 아버지는 한 세대의 앞 즉, 자신이 경험한 어린 시절의 민속을 지금은 볼 수 없는 아들의 세대에게 “내가 초등학교에 다

<그림 5> 시간에 따른 민속의 가치



닐 때는 이런 곳에서 살며 이런 놀이를 하고 놀았단다”라고 설명을 해준다. 필자가 학창시절에 본 30년 전의 인사동 거리와 지금의 인사동은 많이 변했다. 30년 전의 모습을 지금 볼 수 있다면 한층 관광자원으로 활용가치가 높을 것이다.

현재 삶의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현용민속<sup>30)</sup>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비현용성이 증대되지만 그것에 대한 기록과 보존이 전제된다면 새

30) 현재 생활 속에서 행해지거나 사용되는 민속.

로운 활용가치를 지니게 된다. 물론 민속에 따라 차이가 있겠으나 대개 30여 년을 넘김에 따라 점차 민속문화유산으로써 가치를 발휘한다. 당대의 민속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과거의 증거자료로서 희소성과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증대되기 때문이다. 건축물의 경우에는 50년이 지나면 문화재적 가치를 인정받게 되며 현용민속이 100여 년의 세월을 넘기게 되면 한층 귀한 문화재로 격상된다.

## (2) 민속의 활용방법

민속을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하는 것은 활용적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 세월이 지남에 따라 가치가 증대되는 민속문화유산을 우리는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까. 기록되고 보존된 민속자원은 전시와 공연, 축제, 테마파크, 디지털콘텐츠, 테마여행, 교육, 문화상품과 같은 각종 문화콘텐츠로 활용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생활사 구축, 공동체의 정체성 등 다양한 측면을 충족시켜 줄 수 있는 자원으로 활용된다. 이러한 민속의 활용을 위해서는 생활 속에서 하찮게 보이는 것도 문화유산의 관점에서 인식하고 기록학과 민속학적 소양을 가지고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또한 그것은 기록의 공공성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활용되고 공유되어야 한다. 민속자원은 공동체의 자치와 주민참여를 이끌어 내는 공유와 소통의 기제로서 문화변방에서 문화의 중심으로, 하찮은 것에서 새롭게 인식되는 것으로, 지배자 중심의 기록에서 모든 인간의 기록으로, 문화독재에서 대중의 참여민주주의로, 중앙에서 지방으로, 공공영역에서 민간영역으로 기록학과 민속학의 패러다임을 새롭게 한다.

## 4. 민속기록학이 제기된 배경

### 1) 기록학에서의 요구

#### (1) 민간영역과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관심

최근 구미에서는 공동체 아카이브가 주목받고 있다.<sup>31)</sup> 2009년에 발간된 ‘Community archives—the shaping of memory’라는 책<sup>32)</sup>은 이러한 경향을 보여준다. 14편의 에세이로 엮어진 이 책은 기록과 커뮤니티의 관계 및 아키비스트의 책임감에 주목한다. 기록은 커뮤니티를 구축하고 유지하며 정체성을 통합하고 기억을 모으는 중추이며 가치있는 지식과 능력을 제공하고, 커뮤니티는 기록을 통해서 스스로를 표현한다는 점에 저자들은 동의한다. 기록과 공동체의 관계는 나라마다 다양하고 공동체도 각국이 처한 전통이나 상황에 따라 주관성을 가진다. 학자들에 따라서도 공동체에 대한 시야는 개인적, 지역적, 사회적, 국가적이거나 다양한 층위를 보여주기 때문에 이 책에서 공동체에 대한 분명한 정의를 내린 학자는 없으며 넓은 의미로 통용된다. 이 책에서 저자들은 기록의 개념적인 확장을 제시한다. 기록학에서 이전에 행한 방식을 넘어서 축제나 퍼레이드, 기념물, 음악, 인간행위나 문화활동 등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것으로 기록을 보고자 한다. 또한 기록을 보고 이해함에 있어 새

---

31) 커뮤니티 아카이브즈 운동은 특히 미국과 영국에서 지난 10년간 기록학자와 일선에서 일하는 아키비스트들에게 주목을 받으면서 발전되어 왔다. Anne J. Gilliland, “Community-centric Appraisal in Support of Community Governance, History and Voice”,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기록의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 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2, p.43.

32) Bastian, Jeannette A, *Community archives—the shaping of memory*, Facet Publishing: London, 2009.

로운 방식을 요구한다.

우리나라에서는 1999년에 ‘공공기관의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제정되고 지난 10여 년간 국가기록원 및 정부기관, 자자체 등에서 공공 기록물을 수집하고 관리해오고 있다. 물론 각 기관이나 지자체의 내부 사정에 따라 시기나 형편은 차이가 있지만 공공기록물 관리에 대한 인식과 담당부서의 설치는 확대되어가고 있다. 이러한 공공기록물에 대한 관리는 한편으로 민간기록물과 민간영역의 기록에 대한 관심으로 이어지게 되었다. 다음의 글은 이러한 관심의 표명이다.

“공공영역을 중심으로 한 기록관리, 이것만으로 우리의 삶을 담아낼 수 있을까? 기록관리가 행동의 증거로서 기록을 남기는 행위라면 민간영역 역시 그러한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sup>33)</sup>

물론 이러한 관심은 구미에서부터 불어왔던 포스트모더니즘의 경향에 힘입은 바도 있다. 거대담론에 의문이 제기되고 문화적으로 주변부에 밀려있는 것이나 사회적인 약자에 대해 주목하게 되었다. 최근 역사학계를 비롯한 “인문사회과학에서 일상사, 생활사, 구술사, 지방사에 대한 관심이 점차 증대되고 있다.”<sup>34)</sup> 이러한 경향들은 기록학의 내부에서도 공공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민간영역으로 관심을 가지자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게 되었으며 구미기록학계는 물론 우리나라의 기록학계에서도 이미 연구들이 진척되고 있다. 국내 기록학계에서도 공동체 아카이브에 관심을 가지게 되고 비록 초창기라고 볼 수 있지만 마을아카이빙, 지역기록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과 같은 논의들이 고개를 들고

33) 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집, 한국기록학회, 2009, 44쪽.

34)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 - 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1호, 2005, 217쪽.

있다.

## (2) 민간영역과 공동체 아카이브의 기록에 있어 민속학적 연구방법론의 요구

기록학에서는 민간기록물에 대한 수집이나 공동체 아카이빙,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 구술사, 일상사 연구를 위해서 민속학적 경험과 방법론이 요구된다. 최근 기록학계에서는 민간영역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으며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해 민간에 나가 기록물을 수집하고 지역에서 기록화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현장에 나가 기록화사업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한 기록학계의 현실은 이 분야의 실무능력을 배양하기 위한 새로운 방법론이 요청된다. 그동안 기록학에서는 공공영역에서 생산된 기록물을 넘겨받아 그것을 보존·관리하는 부분에 교육이 집중되었기 때문에 민간영역에 대해서는 경험과 방법이 부족하다. 이러한 기록학계의 사정은 다음의 글<sup>35)</sup>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사회전반의 기록화 작업을 달성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 1980년대 제시된 도큐멘테이션 전략의 실패를 언급하며 사람들은 주제 선별의 자의성과 협업의 어려움을 그 한계로 말한다. 도큐멘테이션 전략은 아키비스트가 협업을 통해 사회 안전이나 주제들, 혹은 지역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고 재구성, 보존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그러나 전략에 대한 이론적 연구가 선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전략을 적용하는 일은 쉽지 않았다...(중략)... 크게 문제시되었던 것은 새로운 기록전통을 세우기 위해 수집된 기록은 기존 기록 관리방식에서 다루지 않았던 생소한 기록이라는 사

35)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한국 기록학회, 2012, 8쪽.

실이었다. 민간에서 생산된 기록들은 그 내용과 형태 면에서 대단히 다양했고, 기존의 기록 관리는 다양한 공동체로부터 수집한 민간 기록들을 이해하고 다룰 수 있는 근본적인 기록관리 인프라를 가지고 있지 않았다. 기록학계는 아래로부터의 기록 관리라는 새로운 영역으로 눈을 돌렸지만, 곧 스스로 이를 실행하기 위한 개념과 방법론이 부재하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지자체의 의뢰를 받아 공동체 아카이빙을 한다고 해도 기존 기록학 교육을 받은 학생들의 기록화 능력은 현실적으로 일을 수행하기에 부족하다. 기존의 기록학 교육만 가지고는 민간기록자료의 보관처나 자료보유자를 찾아다니는 능력, 어떤 자료를 찾아야 하는지에 대한 자료 선별능력, 자료를 찾은 후 어떻게 분류하고 분석해야 하는지에 대한 능력, 자료에서 어떤 정보들을 얻어내고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밝히는 능력 등을 제대로 배양할 수 없다. 이들 민간기록자료들은 수십 년이 지난 비현용자료이거나 문서가 아닌 일반 문헌자료나 사진인 경우도 많으며 문화재적 가치를 가지고 있다. 또한 자료의 내용은 생활사나 민속학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 많다. 민속학적 소양이 전무하고 민속의 눈이나 문화의 눈으로 자료를 보지 못하는 기록학도가 그것의 의미를 밝히고 분석한다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공공영역에서 생산된 자료를 인계받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자료를 분류하고 처리하는 경험만 가지고는 자료의 문화적, 민속적 의미와 가치를 찾아내지 못하고 그러한 자료를 제대로 관리하고 활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현재 기록학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어떤 대상자를 찾아가서 카메라를 고정시켜 놓고 미리 준비한 질문지를 읽어가면서 채록하는 구술사 조사가 전부라고 볼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은 구술사를 하는 것은 기록학에 포함되지만 다른 민속에 대한 기록화는 기록학이 아니라는 영똥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다. 물론 이러한 구술사 채록도

구술채록을 기본으로 하는 민속학적 방법에서 연유한 것이며 처음부터 기록학이나 역사학에서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다. 인근학문에서 공부한 사람들이 구술사와 관련된 교육을 하고 이와 관련된 프로젝트를 기록학계가 하면서 그나마 구술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이다.<sup>36)</sup>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해서는 마을사, 지역사, 생활사적 측면에서 다양한 현장조사와 기록화사업이 펼쳐지고 이와 관련된 이론적 뒷받침을 해야 하는데 현재 기록학계의 역량은 이런 것에 제대로 대처할 수 없다. 아카이빙은 단시일에 교육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민속학계에서도 소수의 전문가를 제외하고는 익숙하지 못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록관리학과 학생들은 전문적인 훈련을 받아야 한다. 만약 기록화사업에서 경험이 풍부한 팀장이 자세히 조사방법과 매뉴얼을 제시해준다면 어느 정도까지는 처리할 수 있지만 그것도 심층적인 현장조사에 이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개인의 반복된 기록화 경험과 민속지식도 축적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물론 그렇다고 아주 어려운 일은 아니다. 처음부터 기록학계에서 구술사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며 인근학문의 도움을 받은 것처럼 다양한 유형의 민속기록도 교육을 받고 프로젝트와 같은 실무적인 일을 수행하다보면 기록화 능력은 심화될 것이다.

기록학이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민속학적 방법론이 요청된다. 민속학의 눈으로 민간영역의 자료를 수집하고 분류하고 분석·활용할 수 있는 능력, 민속학적 방법에 의한 현장관찰 및 기

---

36) 미국에서는 1948년 컬럼비아대학에 구술사연구소가 설립되고 1967년에 설립된 미국구술사연합회는 학술지 발간과 구술사가 일반인을 위한 워크숍은 물론이고 구술사료 수집을 위한 매뉴얼 및 각종 양식, 수집 정보, 기록관리를 위한 기준과 정보 등을 제공하여 각지의 구술사가들과 기록관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30쪽). 근래에 국내에서도 미국에서 영향을 받은 역사학자 등 여러 학문분과에서 구술사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 민속학의 경우에는 현장조사 및 관찰 방법과 함께 일찍부터 구술사적 접근으로 생활문화를 규명해 왔다. 특히 무속연구에서는 무당의 종교체험이나 생애사를 채록하는 연구가 예전부터 이루어져 왔다.

록화, 민속학자처럼 정보제공자를 만나 능숙하게 질문하고 그의 세계를 심층적으로 파헤칠 수 있는 소양 등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속의 눈으로 보면 종이로 된 기록물뿐만 아니라 인간의 삶의 주변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기록물로 인식할 수 있다.<sup>37)</sup>

일반적인 기록물관리자의 범위를 넘어 문화연구자로서의 위상을 겸비한 아키비스트가 되기 위해서는 민속기록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렇게 될 때 문서고 밖의 넓은 세계를 조망할 수 있다. 민속기록은 문화의 영역을 기록학으로 가져올 수 있는 시야와 방법을 제공해준다. 이상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공기관에서 생산된 자료를 넘겨받아 정해진 매뉴얼에 따라 처리하는 업무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기존 기록학 교육은 현장에서 문화를 채집하고 기록하는 일에 낯설기 마련이다. 그러다 보니 현장에서 부동산세를 취하거나 수동적인 수밖에 없다. 현장에서의 문화기록이란 스스로 판단하고 찾아가는 창의성을 토대로 하기 때문에 기록에 대한 새로운 접근이 요구된다. 기존 기록학계에서도 민간기록에 대한 전략을 세우고 방안을 설계한 글이 발표되고 있지만 현장경험이 부족하기 때문에 설계된 글도 구체성이 떨어진다. 아직 초창기라는 시기적인 문제도 있지만 방법론적으로 민속학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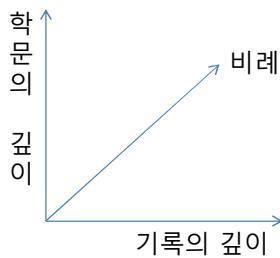
37) “북미 흑인 공동체는 그 굴곡의 역사를 재즈를 통해 표현했고, 캘리포니아의 동성애자들은 종종 대담한 성적 이미지로 자신들을 설명하길 원했다. 일본계 미국인은 태평양 전쟁의 트라우마를 그들의 개인 일기에 고스란히 적었다. 물리학자 공동체는 복잡한 수식을 포함한 연구데이터를 기록으로 남기며, 미국 원주민들은 조상의 유골과 뼈조각으로 그들의 신성한 기억을 보존하고 있었다. 공동체들은 자신의 기억을 재현하기 위해, 자신들만의 특별한 방식을 선택했다. 따라서 아키비스트들은 민간기록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개별적 공동체들이 자신의 기억을 어떠한 방식으로 기록화시키고, 그것을 어떻게 보존하는지, 또 왜 그렇게 하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분석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이는 대중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가 전제되지 않으면 사실상 그들의 기록과 기억보존장치를 찾아낸다는 것은 불가능함을 암시하는 것이었다”(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11쪽). 이러한 것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민속학적인 현장관찰과 조사방법이 요청된다.

## 2) 민속학에서의 요구

### (1) 민속기록에 대한 이론적 기반과 전략 모색

기록은 민속학의 생리에서 필수적인 요소이다. 체계적이고 심화된 기록을 통해서 민속이 연구될 때 심도 있는 연구가 가능하다. 기록을 무시한 채 연구자의 선부른 분석에만 의존해서는 깊은 연구가 수행될 수 없다. 또한 심화된 기록을 통해서 작성된 민속기록지가 축적될 때 다양한 연구자들이 충분히 이용할 수 있다.

<그림 6> 학문과 기록의 관계



두 사람이 있다고 해보자. A는 평소에 기록을 중시하여 민속을 조사할 때 그것을 재현(representation)할 수 있을 정도로 세세하게 기록을 하고 그것을 토대로 연구한다. B는 기록하는 것은 학문이 아니며 학문에서는 분석을 중시해야 한다고 하고 세세히 기록한 것을 보고 “조사보고서 같다”는 등 못마땅한 입장을 취한다. 그는 자

신의 시각을 중시하며 현장에서 자신의 눈에 포착되거나 마음이 가는 것을 일부 선택하여 충실한 기술(記述) 없이 논문을 쓴다고 하자. 누구의 논문에 더 깊은 민속지식이 실릴 수 있을까. 그리고 누구의 논문이 더 신뢰를 얻을 수 있을까. 그런 것이 반복된다면 오래 지나지 않아 학문적인 심화도에서 두 사람은 현격한 차이를 나타낼 것이다. 깊이 있는 조사와 기록은 기록했다고 하는 사실에 머물지 않는다. 더 깊이 있게 접근할 수 있는 경험과 질적방법론을 수반한다. 즉, 깊이 있고 세세하게 기록할 수 있는 사람은 깊이 파고들 수 있는 능력을 전제하기 때문에 누구도 그런 기록인을 선부른 방법론, 분석론을 운운하며 비하할 수 없다. 깊은 기록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성숙되고 전문화된 연구를 수

만하기 때문에 ‘학문의 깊이는 기록의 깊이와 비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인류학의 민족지(ethnography)가 문화에 대한 표상화니, 왜곡이니 하는 문제점을 낳는 것은 곧 이런 기본적인 기록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점도 원인이 된다.<sup>38)</sup> 민족학의 내실화를 위해서 ‘기록’은 반드시 전제되어야 한다.

상아탑 밖으로 즉, 사회각계에서 요청되는 민족관련 기록화사업으로 화제를 돌려보자.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민족기록화사업을 한다. 그동안 문화재청에서는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를 발간하는 등 각종 조사사업을 했다. 그런데 당시의 인적자원이나 여건에서 볼 때 이런 기록화사업에 많은 노력이 투입되었음을 알 수 있으나 오늘날 기록의 관점에서 보았을 때 많은 아쉬움이 있다. 처음부터 기록에 대한 장기적인 전략을 가지고 심화된 민족기록을 창출했다면 민족학의 수준도 한층 상승되었을 것이다. 물론 『한국민속종합조사보고서』는 민족학의 발전에 기여하였다. 그 조사사업이 있는 이후 조사사업에 참여했던 연구자들은 다양한 논저를 출간하면서 민족학의 발전을 낳았다. 학문의 깊이가 기록의 깊이와 비례한다는 말을 실감하게 한다.

그럼에도 그 조사사업이 한층 체계적이고 깊었으면 하는 욕심은 왜 생기는 것일까. 미래적 가치를 고려하여 보다 깊이 있는 기록화사업으로 진행되었다면 ‘한국민속학’의 위상도 오늘날 새로운 위치에 놓여있을 것이다. ‘한국민속종합조사사업’이나 기타 각종 기관의 조사사업이 비록 전적으로 민족학자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해도 그 결과물을 놓고 평가할 때는 민족학자나 민족학에 대한 평가로 이어진다.

38) 인류학에서는 말리놉스키가 1915년에 멜라네시아 트로브리안드 제도에서 민족지(ethnography)적 현지조사를 한 후 현지조사를 통한 민족지 기술을 일반적인 연구방법으로 받아들였다. 그러나 이후 이러한 민족지가 객관성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객관적이지 못하며 인류학자가 문화를 표상한 것에 불과하다는 비판이 일어났다. 민족지의 허구성이 폭로된 것이다. 필자는 민족지가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문화에 대한 충실한 기록을 등한시 한 측면도 원인이 된다고 본다.

“그런 것을 왜하는지 모르겠다” “민속학도 학문이나” 등 국가기관에서 행해지는 민속조사사업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 또한 민속학의 학문성 시비로 이어진다. 민속학자로서 억울한 점도 있다. 민속학자는 일부로서 참석했을 뿐인데 민속학 자체가 그것에 의해 비판되어야 한다는 점은 안타깝기도 하다. 오해를 받는 부분이 없지 않지만 그러나 어찌되었던 ‘민속’이라는 용어가 들어가는 사업에서 민속학자는 그것에 참석을 했든, 하지 않았든 일정부분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고 또한, 책임감을 느낄 수밖에 없다.<sup>39)</sup> 비록 민속학자 자신이 참석하지 않는다고 해도 큰 줄기에서 방향을 제시하고 선도해나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 반성의 여지가 있다. 민속학자 개인의 연구가 아니지만 상아탑 밖에서 일어나는 각종 민속조사사업에 있어서 민속학자는 사회적으로 1차적 책임을 져야 하고 그것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이러한 비전을 가진 ‘민속기록학’의 역할이 요청되며 민속기록의 이론적 기반과 전략을 수립함에 있어 기록학적 사고와 방법이 도움을 줄 수 있다.

## (2) 기록학적 사고와 방법의 요구

기록학은 ‘민간기록’이라는 영역에서 민속학과 조우(遭遇)한다. 물론 이러한 민간기록은 공동체 아카이브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기록학에서는 최근 일상사, 생활사, 구술사로 관심이 확대되었지만 이런 것은 민속학의 본질적 요소이다. 그럼에도 민속학에서는 그것을 자신의 장점으로 살리고 전문화시키지 못했다. 반면 인근학문에서는 이 분야를 파고들고 있는 상황이다. 민속학이 중요하고 할 일이 많

39) 오늘날 정규 민속학과에서 교과과정을 이수하고 전문훈련을 받지 않은 인근 학문의 연구자들이 민속연구에 참여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민속학자의 입장에서 착잡한 점도 없지 않다. 이들 유사 민속연구자들은 때로는 민속학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궁극적으로 민속학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요원하게 하며 또한 민속학 해체론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은 학문임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부재와 정규 민속학 과에서 제대로 교육을 받은 민속학자의 수적인 열세 등은 민속학 내실화는 물론, 민속학이 가진 학문적 장점조차도 문힐 정도로 인근학문에 압도되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물론 이런 부분은 앞으로 얼마든지 개선될 수 있다.

민속학이 개선되기 위해서는 교육의 내실화는 물론, 정규 민속학 교육과정을 받은 민속학자의 수적인 증대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해 보다 많은 대학에 민속학과가 설립되어야 한다. 또한 기록에 대한 철학과 전략을 가져야 한다. 기록에 대한 전략과 비전을 가지기 위해서는 기록학적인 마음가짐과 이론이 결부되어야 한다. 기록관리학계가 지향하는 기록문화운동 즉, 공동체 아카이브, 거버넌스와 같은 민주주의를 기반으로 하는 항구적인 전략은 민속학에서 민속기록이 가지는 전략이자 사회적 실천운동으로 함께 할 수 있다. 이렇게 민속학은 기록학에서 거시적인 전략과 이론을 수용하여 ‘민속기록학’을 정립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전략은 근대를 배경으로 하는 내셔널리즘이나 근대민속학을 극복하고 신민속학<sup>40)</sup>의 틀 안에서 민주주의를 민속학의 성격으로 가져올 수 있다.

### 3) 정보화 사회의 요청

“아는 것이 힘이다”라는 말처럼 정보력에 따라 우리는 경쟁사회에서 앞서나가기도 하고 뒤처지기도 한다. 정보는 재화가 되기도 하고 상품을 만드는 토대가 되기도 한다. 또한 기초자료가 되기도 하고 콘텐츠가 되기도 한다. 이러한 점에서 정보란 인간 삶에 필요한 모든 지식을 포함한다.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전승지식, 동시대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전달받은 지식, 스스로 터득한 경험적인 지식 등이 정보가 될 수 있다.

40) 신민속학에 대한 논의는 추후 다른 기회를 갖도록 한다.

인간이 정보를 전달하는 방법은 문명이 발달함에 따라 진화를 거듭해 왔다. 구술로 전승되던 정보는 그 일부가 문자로 전달될 수 있는 문자기록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문자의 발명은 구술문화(oral culture)의 모든 것을 담아내지는 못하였다. 월터 J. 옹이 “쓰기는 독점적이고 제국주의적인 활동이기 때문에 무슨 어원과 같은 역사적인 연결에 의지할 것도 없이 다른 것을 자신 속에 동화 흡수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sup>41)</sup>고 한 것처럼 구술성(orality)과 문자성(literacy) 사이에는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자를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로 계급이 나누어지고 문자기록은 계급을 가진 사람이나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을 위주로 기록되었다.

문자의 발명은 종이, 인쇄술의 발명에 힘입어 인쇄문화를 낳게 했으며 정보는 이제 금석문, 그림, 문자, 책, 신문, 잡지와 같은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전달될 수 있게 되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사진, 동영상, 녹음기와 같은 시청각기술로 이어졌으며 이것은 영화와 TV, 라디오와 같은 대중매체를 낳았다. 한걸음 더 나아가 이러한 미디어에 그 방식을 바꾸는 획기적인 기술적 전환이 디지털을 통해 성취되었다. 이러한 디지털은 우리의 정보취득과 생활방식, 커뮤니케이션 방식을 크게 바꾸어 놓았다.

권상희는 디지털 미디어는 우리 감각기관의 연장이 아니라 감각기관 그 자체이고 생활공간 그 자체가 되는 페러다임의 변화라고 본다. 이 미디어는 세상과 나를 연결하는 창(window)으로 세상의 정보와 지식을 요약해 내게 전해주는 수단이자 나를 세상에 부각시키는 매개체로 기능한다고 보았다. 최근 주목받고 있는 블로그, 미니홈피, 개인방송국, UCC 등이 ‘커뮤니케이션 미디어’이며 이러한 기본 기능에다 삶의 많은 부분이 이곳(디지털이 만든 공간)으로 옮겨온다고 본다.<sup>42)</sup>

41) 월터 J. 옹,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3, 23쪽.  
42) 권상희, 『디지털 문화론』, 24쪽.

오늘날 인터넷을 통해 우리는 원하는 정보를 취득하고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잠자리에 들 때까지 끊임없이 이러한 통신에 의존하고 있다. 놀 때, 쉴 때, 업무를 볼 때, 공부를 할 때, 연락을 할 때, 문서를 주고받을 때, 토론할 때, 건의할 때, 주장할 때, 친구나 동호인을 만날 때, 일대일 혹은 일대다수, 다자간의 소통에 있어 디지털이 제공하는 공간은 정보공간이자 소통공간, 알람의 공간, 놀이공간, 상거래 공간 등 모든 활동의 공간으로 현대생활에 깊숙이 들어와 있다.

사이버 공간은 이제 세상과 연결하는 통로이자 정보의 창고가 된다. 사람들은 세상의 정보를 컴퓨터에서 만나고자 하며 컴퓨터는 세상의 모든 정보를 담아내도록 요구받고 있다. 즉, 컴퓨터는 기록화를 통한 DB화의 토대 위에 있을 때 정보송신을 원활히 할 수 있다. 사람들은 이미 디지털 환경에 빠져있으며 그것을 통해 손쉽게 정보를 얻고자 한다. 최근에 대중화된 스마트폰은 현대인의 일상을 지배하는 도구가 되었다.

“기술의 발달은 민속의 소멸을 가져올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사실이 아니다. 전화, 라디오, 텔레비전, 제록스 기기(Xerox machine)의 기술은 민속의 전송속도를 증가시켰다”<sup>43)</sup>라는 던데스의 주장은 통신기술과 민속이 상생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환경에서 민속정보는 ‘민속콘텐츠’를 형성한다. 이미 민속관련 연구소나 박물관에서는 디지털을 이용한 민속콘텐츠를 구축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러한 정보의 대량 유통이 가능한 디지털 환경은 이용자들의 입장과 기호에 맞는 다양한 양질의 정보를 요구한다. 따라서 충분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되어야 한다.<sup>44)</sup> “전통적 내러티브에서는 평균적인 시청자에게 얼마나 보편적인

---

43) Alan Dundes, *INTERPRETING FOLKLO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17.

44) 비록 정보를 전달하는 IT기술은 발달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환경에 정보를 올려놓기 위해서는 정보를 수집하고 모으고 기록하고 조사하는 일이 선행되어 콘텐츠가 축적되어야 한다. 그러한 정보의 축적 없이는 정보통신도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없다. 콘텐츠의 중요성이 다시 한 번 강조된다.

소구력을 지닐 수 있는가가 중요시되는 측면이라면, 디지털 내러티브에 서는 얼마나 다양한 취향과 선호도를 가진 이용자들을 이야기에 끌어 들일 수 있는가가 평가의 기준이 된다.”<sup>45)</sup> 따라서 민속콘텐츠도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가 수용되는 이용자 중심으로 고려되어야 한다.<sup>46)</sup> 그럼에도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민속콘텐츠를 보면 자료의 폭과 깊이가 낮다.

정보통신분야는 급속히 발달되어 가는데 그것에 콘텐츠를 채워야 할 사람들의 능력과 인식은 크게 미치지 못하고 있다. 정보기술에 비해 그것에 내용을 담을 인력이 제대로 양성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기관에서 국책사업으로 준비해 놓은 디지털콘텐츠를 보면 막대한 돈과 우수한 기술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내용은 실망감을 안겨주기 일쑤이다. 정보기술만 믿고 인문학적 지식이나 민속기록학적 소양을 간과한 채 내용물의 깊이나 가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실무자가 많다. 관련 콘텐츠에 대한 소양이 부족하다보니 이용자들의 요구를 제대로 읽지 못하고 얕은 내용물에 만족하거나 그것에 대한 변명을 늘어놓기도 한다. 민속콘텐츠는 인문학적 배경과 그와 관련된 민속기록학적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서 기획되고 생산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문가가 누락된 공공기관의 민속이나 향토문화와 관련된 공동체 아카이빙이나 공동체 아카이브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들 간의 분업이 필요한 것이다. 알맹이를 채울 사람과 그것을 포장할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할 일이 따로 있다. 정보기술은 있는데 알맹이를 채울 사람이 없는 작금의 현실에서 무작정 사업을 펼치는 것은 낭비일 수 있다. 국가기관에서 펼치는 많은 사업들이 이러한 점에서 부실성이 제기된다. 민속기록학과 같이 알맹이를 채울 수 있는 학문분야가 충분히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속기록학이 정보

---

45) 권상희, 『디지털 문화론』, 36쪽.

46) 이용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이용목적에 부합될 수 있는 자료를 원한다.

화 사회에서 필요한 이유이다.<sup>47)</sup>

민속콘텐츠는 민속기록을 전제로 한다. 이러한 디지털 환경에서 민속콘텐츠를 중심으로 지역의 문화를 수렴하는 것은 그것을 통해서 세계에 우리를 알리는 세계화 전략에도 어긋나지 않는다. 김창민의 견해를 들어보자.

“전통문화 콘텐츠는 한 국가나 지역의 전통문화를 소재로 개발된 콘텐츠를 말한다. 이것은 원천 정보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보면 가장 강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자신의 전통문화는 다른 지역이나 국가에서 접근하기 쉽지 않는 폐쇄성을 가지고 있으며 고유성이란 측면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이다. 전통문화 콘텐츠가 각광을 받게 된 것은 크게 보면 세방화(Glocalization)와 맥락을 같이 하고 있다. 지역의 문화를 콘텐츠로 개발하면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인식 때문에 전통문화 콘텐츠는 콘텐츠의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는 것이다. 한류 열풍도 전통문화 콘텐츠에 영향을 끼치고 있다.<sup>48)</sup>

디지털 환경에 의해 한층 강조되는 세방화시대, 문화산업의 시대, 정보화 시대, 참여민주주의 시대에 공동체에서 생산되는 민속지식과 민속정보의 자원화를 바탕으로 민속기록학은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있다.

---

47) 민속기록학적 입장에서 지역 기록화에 대한 방향을 모색한 글로는 김덕목,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 마을지의 새로운 방향모색」, 『경기도 마을지 연구의 새로운 전망』, 경인민속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를 참조할 수 있다.

48) 김창민, 「전통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 방안: 한계와 가능성」,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7, 64쪽.

## 5. 민속기록학의 과제

### 1) 대학에서 민속기록학에 대한 교육과 연구기반 조성

#### (1) 민속기록학을 위한 연구기반 조성

민속기록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연구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기록관리학에서는 기존의 공공기록물관리학과 함께 민속기록학이 양립할 수 있는 교육환경이 제공되어야 한다. 기록관리학에서 민속기록학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대개 직업교육의 성격이 강한 현재 기록관리학에서는 공공기록물관리를 중심으로 하고 있다. 간혹 민속기록과 관련된 논문을 쓰겠다고 하는 대학원생들도 막상 논문을 집필할 때는 공공기록물관리 쪽으로 주제를 바꾸는 경우가 많다. 공공기록물관리와 관련된 논문이 취업할 때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주위에서 듣기 때문이다. 실제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이러한 생각은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되고 각 기관에서 일할 때 민속기록학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식된다면 점차 사라질 것이다.

학생들이 민속기록학 분야로 논문을 쉽게 쓰지 못하는 다른 이유는 표본으로 삼을 만한 선행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이다. 학생들은 논문을 집필하려고 하고 쉽게 방법을 찾지 못한다. 게다가 평소 기록화에 대한 훈련이 부족하고 현장조사에 익숙하지 않은 그들에게 현장조사는 부담으로 작용한다. 그러나 아직 출발선을 뛰어나간 사람이 없어 그렇지, 민속기록학과 관련된 이론과 방법론이 구체화되면 연구는 활기를 띠게 될 것이다. 대학에서 민속기록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학술논문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민속기록학을 담보할 수 있는 학회가 창립되고 학회지에 관련논문들이 게재된다면 민속기록학의 위상은 강화될 것이다. 민속학계에서도 민속기록학이 교육되고 충분한 연구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 (2) 민속기록전문가 양성을 위한 교육

민속기록학에서는 체계적인 교육을 통해서 민속기록전문가를 배출하고 그들이 사회에 진출하여 민속기록학을 필요로 하는 공동체 아카이브에서 충분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민속아키비스트가 향토기록관, 문화재기관 등에서 활동할 때 민속기록학의 사회적 실천이 구체화될 수 있다. 따라서 교육뿐만 아니라 이들을 수용할 수 있는 사회적 기반을 만들어가야 한다.

## 2) 민속기록학의 사회적 실천과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

### (1) 공동체 아카이브 운동

공동체는 공간영역뿐만 아니라 일정한 공간의 범주를 넘어서는 다양한 모임이 포함된다.<sup>49)</sup> 민속기록학은 공동체의 정체성(identity)과 그것을 담보하고 있는 각종 코드(민속)에 관심을 가진다. 공동체 내의 이러

---

49) Dundes는 하나 이상의 공통된 요소를 가진 어떤 그룹의 사람이라면 'folk'라고 볼 수 있으며 두 사람 이상만 되어도 하나의 그룹이 구성될 수 있다고 보았다. 그룹의 멤버들은 서로를 잘 모른다고 해도 그 그룹에 있는 전통의 일반적인 요소들을 알고 있으며 그러한 전통은 그룹에 정체성을 제공한다. 또한 하나의 그룹은 국가만큼이나 클 수도 있고 가족만큼이나 작을 수도 있다고 보았다(Alan Dundes, *INTERPRETING FOLKLO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p.6~7). Dundes는 이러한 그룹을 'folk groups'이라고 하였는데 이점은 민속기록학에서 '공동체(communitiy)'의 개념을 고려할 때 참고할 수 있다. 개념상으로 groups과 공동체가 차이가 있다 해도 오늘날과 같이 공동체의 개념이 넓혀진 상황에서는 그룹도 공동체의 일종이 될 수 있다. 특히 던데스가 국가만큼 큰 것도 groups의 범주에서 보았다는 점에서 그는 groups의 범주를 이미 통상적인 개념 이상으로 확대하고 있으며 그런 그의 문맥(context)에서 볼 때 groups은 오늘날 넓은 범주에서 사용되고 있는 공동체 개념에 근접한다고 볼 수 있다. 민속기록학은 공동체에서 생산된 모든 유형의 민속을 대상으로 한다.

한 코드를 기록하고 수집, 관리하는 곳이 공동체 아카이브이다.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 운동은 민속기록학의 사회적 실천의 중요한 방향이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활성화될 때 기록문화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도 낮설지 않게 된다. 오늘날 가정이나 작은 단체에서부터 마을, 지역사회, 국가, 세계라는 다양한 공동체가 있다. 이들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아카이브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기록문화를 꽃피우고 아카이브를 활성화한다면 각 공동체는 저마다의 존재의미를 가지고 스스로를 가치있게 할 것이다. 공동체 아카이브가 지향하는 것이 정체성이지만 그것은 결코 배타적인 것이 아니다. 자기 존재에 대한 가치회복임과 동시에 타 존재에 대한 동일한 의미부여로 이어진다. 이것은 민속기록학이 지향하는 민주주의와 맥락을 같이한다. 아울러 특정 계급 중심의 기록을 거부하며 기록의 다원성을 지향한다.

## (2) 기록문화에 대한 인식확산

지난 100여 년간 조용한 아침의 나라는 도시화되었다. 세대 간의 역사적, 생활사적 경험도 차이가 나고 지난날의 것은 잊혀져 가고 있다. 오늘날 생존자의 기억에 남아 있는 지난날의 생활이 기록되어야 한다.<sup>50)</sup> 이를 통해 생활사 복원 자료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동안 우리는

---

50) 농경을 기반으로 한 전통적 생활문화는 우리사회가 도시사회로 변모하면서 소실의 위험에 처해지거나 이미 상당부분 소실되었다. 한옥이 급격히 와해되어 고도 서울에 수십 만호를 자랑하던 것이 이제 몇 천호가 남았으며 필자의 고향 마을을 보더라도 10여 년 전만 해도 80% 이상이 한옥이었으나 2010년에는 15% 정도만 남았다. 무형의 민속자산들도 전통적인 농경기반이 와해되면서 단절의 위기에 처하거나 일부는 단절되었다. 우리의 생활주변에 있는 수많은 무형의 민속지식이나 크고 작은 민속의례 등은 전승현장이 사라지거나 전승자들의 고령화로 인하여 단절될 수 있는데 기회가 있을 때 기록해야 한다. 이러한 문화는 과거의 단순한 흔적이 아니라 생활사, 미시사를 밝힐 수 있는 학술적 가치뿐만 아니라 볼거리, 놀거리, 읽을거리, 들을거리, 체험할 거리를 주는 정보이자 자원이다.

잘 살아보자는 것에 매진하면서 문화적으로 몰상식한 일도 하였다. 건설을 위해 아무것이나 파괴했고 아파트를 짓는다면 몇 백년 동안 내려오는 공동체의 제당 같은 것은 포크레인으로 몽개버리면 되었다. 서양의 유명상품에는 주목하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기록문화에 대한 선진국민의 마음가짐은 배우지 못했다. 미국은 1846년에 스미소니언과 같은 아카이브를 만들었으며 그것을 미국의 미래지향적인 발전의 동력으로 삼았다. 유럽인들의 성숙한 기록문화 또한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준다.

우리도 조선왕조실록과 같은 기록문화가 있었고 문서고가 있었다. 그러나 그것은 왕실을 중심으로 한 것이었다. 민초들에 대한 기억과 증거는 왕조실록과 같은 문헌에 조금 묻어있으나 그것도 지배층의 시각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지금은 민주주의 국가이다. 우리사회는 수많은 공동체가 있다. 각 공동체마다 기록에 대한 인식이 충만하고 기록관 설립이 보편화되어야 한다. 공동체가 저마다의 색깔로 자신의 존재의 빛을 아카이브에 담아내는 것은 수많은 사람 속에서 나를 찾고 나의 존재 가치를 인식하는 것과 같다. 기록은 나에게 그리고 내가 소속된 곳에 의미를 부여하고 생명력을 주는 생명존중사상과 다르지 않다. 기록은 억압을 폭로하고 계급을 없애며 각 공동체 간의 수평적 관계를 지향한다. 중앙과 지방의 소통, 민·관(民官)의 협력, 공동체 간의 상생, 권위주의의 청산, 정보의 공유를 위한 기록문화의 활성화는 문화선진국으로 진입하는 초석이며 우리사회를 더욱 값지게 하는 장치이다.

### (3) 지자체와 산학협력체제 형성

한국에서 기록관리학의 발전이 공공기록물관리법의 제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은 민속기록학의 발전을 위해서도 관련법의 제정이나 행정적인 조치가 요구됨을 암시한다. 중앙 및 지자체의 문화와 관련된 부서나 기관에 민속기록학을 전공한 사람들이 진출해야 한

다. 또한 일선에서 문화를 담당하고 관리하는 공무원들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서 민속기록학이 교육되어야 한다. 업무에 대한 공무원들의 전문성 부족은 오늘날 공무원제도의 문제점 중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과거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지방관이 되면 사법, 행정, 군사까지 두루 담당했다. 당연히 전문성이 부족할 수밖에 없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조선시대보다 훨씬 복잡한 사회가 되었다. 지역의 문화를 담당하는 업무는 해당분야를 전공한 사람이 해야 한다. 문화행정의 전문성이나 지역의 향토문화 기반을 구축하고 비전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필요하다.

## 6. 맺음말

인간의 기억은 처음에는 선명하다가 점차 흐려지고 나중에는 사라진다. 물론 오래 간직하는 기억도 있다. 그러나 그것도 기억의 저장고인 자신이 죽고 나면 사라진다. 집단에서도 특정 세대가 작고하면 사라지는 기억도 있다. 따라서 세대 간을 잇고 정보의 소통을 위해 기록이라는 작업이 요구된다. 일제강점기, 분단, 한국전쟁, 군부독재, 민주화운동, 근대화, 새마을운동, 산업화, 도시화, 서구화 등을 겪으면서 우리는 그동안 기록에 대해 깊이 통찰하지 못했다. 지난날을 기록하고 보존하는 기록관이나 연구소도 없었으며 그것을 가르치는 대학의 교육도 없었다. 이제 공공기록에 대해서는 기록관리학에서 교육이 실시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공공기록은 과거 왕조국가에서 국왕을 중심으로 하는 기록처럼 대통령과 지자체장, 각종 관청 등의 기록에 집중되어 있다. 여전히 기록에서 많은 것이 소외되고 있고 급변해 온 한국인의 지난날의 기억과 흔적을 담아줄 생활사, 각종 미시사 등에 대한 기록은

학문분야에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하고 대학에서도 교육과정을 두어 체계적으로 교육하지 못하고 있다. 이론과 방법론도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민속기록학'이 정립되어 민간영역의 기록에 대한 전문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민속기록학을 통해서 우리는 효율적인 민속자원의 기록화와 활용, 체계적인 민속기록전문가 양성, 국가나 지자체에 필요한 전문인력 수급, 공동체 아카이브의 활성화, 기록문화의 활성화, 문화사회 구현, 민속학과 기록학의 학문적 발전을 이룰 수 있다.

민속기록학은 공동체의 기록화와 기록관을 위한 전문지식을 창출하는 학문체계이다. 민속기록학은 민속학과 기록학적 소양을 기초로 한다.<sup>51)</sup> 민속학은 일찍부터 공동체의 생활문화 연구에 익숙해 있었으며 현장조사, 구술대담을 통한 정보취득, 구술사 채집과 같은 민속기록지적 연구와 문화연구 방법에 전문지식을 가지고 있다. 기록학은 기록물관리에 대한 지식, 기록의 중요성, 거시적 차원에서 기록이 가야 할 방향 등에 시야를 제공할 수 있다. 양자의 융합은 실무경험과 관념적 지향점이 어우러지며 공동체 기록화와 기록관에 대한 한층 성숙된 지식체계를 창출한다. 민속기록학으로 말미암아 민속학에서는 기록에 대해 새로운 인식을 가질 수 있으며 기록관리학에서는 공공기록물 중심의 사고에서 벗어나 새로운 영역을 확보할 수 있다. 오늘날의 환경은 민속기록학의 필요성을 촉진시킨다. 디지털 매체를 통한 정보화 사회는 더 많은 민속자원의 생산과 유통을 요구하며 세계화·지방화 시대는 지역문화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한다. 지역문화의 발굴과 활성화, 전승지식의 기록과 보존, 지역민의 기억의 보존은 지역공동체의 경쟁력 강화와 히스토리 마케팅,<sup>52)</sup> 문화산업, 한류의 원천소스 등의 기반조성을 위해

51) 이러한 일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문화콘텐츠학, 문화재학 등 인접 학문으로부터 실사구시(實事求是)의 입장에서 다양한 방법을 취하겠지만 민속기록학의 기본 토대는 민속학과 기록학에 있다.

52) 히스토리 마케팅(history marketing)은 노명환(한국외국어대학교 정보·기록관리학과)이 제창한 것으로 기업이나 공동체가 기록을 통해 그들의 역사를 보존하

널리 활용될 수 있다.

그동안 민속학에서는 민속기록에 대한 심화된 연구를 하지 못했으며 기록학에서는 민간영역이나 공동체 아카이브를 위한 논의가 구체적인 실천방법을 찾지 못했다. 사정이 이렇게 되자 공동체 기록화를 중심으로 하는 국책사업마저 전문적인 인력을 갖추지 못하고 내실성이 부족하다. 즉, 민간영역에 대한 국가기록원의 부실한 대응은 물론,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향토문화전자대전사업, 문화재청의 한국민속종합조사사업이나 무형문화재 기록화사업, 국립민속박물관의 민속기록화사업, 서울역사박물관의 서울 생활문화기록화사업, 각 지자체의 향토문화 기록화사업 등에서 아마추어리즘이 난무하며 체계적인 방법이나 장기적인 전략이 부재하였다. 우리 사회는 ‘민속기록학’을 필요로 하고 있다. 민속기록학은 앞으로 실용적인 학문분야로서 많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민속기록학의 형성에 있어 몇 가지 성찰할 것이 있다. 첫째는 민속기록학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민속학계나 기록학계의 호응이 있어야 한다. 민속학을 기록학으로 가져가고 기록학을 민속학으로 가져오면서 서로의 부족함을 보완하고 장점을 극대화하는 위치에서 양자가 융합되어야 하며 그 만남이 곧 ‘민속기록학’을 비옥하게 할 수 있다. 따라서 민속학은 정체성, 집단의 기억, 역사적 증거, 투명한 기록, 민주주의와 같은 현대 기록학이 지향하는 방향을 수렴하고 기록학은 생활문화를 연구하고 해석하는 민속학의 방향을 수렴하여 민간영역의 기록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은 정체성, 거버넌스, 민주주의와 같은 용어에 민속학자들이 익숙하지 않으며 기록학에서도 민속학의 용어나 개념에 낯설다. 필자는 양 학문을 수렴해 왔지만 그렇지 못한 연구자들은 이해가 부족할 수밖에 없다. 한동안 설득의 과정이 요구된다. 둘째는 기

---

고 그것을 홍보에 활용함으로 신뢰감과 이미지 향상에 도움을 얻는다는 것이다.

록화에 있어서 성찰문제이다. 공동체 아카이빙이 근대 민속학의 노정에서 보여졌던 구술성(orality)을 문자화 하는 데 야기되는 일반화·표준화의 문제, 인류학에서 객관적이라고 표방되었던 민족지(ethnography)의 허구성과 같은 표상의 위기 문제를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문제이다. 물론 이것은 공공기록물의 평가작업과 마찬가지로 완벽한 것이 없고 미묘한 입장차가 따라붙는 문제이다. 민속기록전문가가 성찰하고 주의할 수밖에 없다. 셋째는 민속기록학은 공동체를 기록함에 있어 심층적인 현장관찰을 요구한다. 민속기록학이 사회과학과 다른 길을 가는 것은 사실에 대한 충실한 기록을 중시하며 그렇게 축적된 자료는 통시적인 접근을 위한 수단이 되며 자연스럽게 공동체를 표현하고 정체성(identity)을 드러낸다. 지난날의 기억은 그들의 정체성을 말해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이것이 도를 넘어 집단주의나 내셔널리즘과 같은 배타성으로 이어지는 것은 경계해야 한다는 점이다. 무엇보다 기록의 정신은 투명한 정보의 공유와 소통에 있으며 그것은 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해야 한다.

#### [참고문헌]

- 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집』, 2010.  
권상희, 『디지털 문화론』, 성균관대학교 출판부, 2008.  
권순명, 「지역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화방안 연구」, 『기록학연구』 21집, 한국기록학회. 2009.  
김기찬, 『골목안 풍경 전집』, 눈빛, 2011.  
김덕목, 「마을문화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을기록관을 제안한다」, 『기록학연구』 제33집, 한국기록학회, 2012.  
\_\_\_\_\_, 「문화콘텐츠 시대의 민속기록과 활용」, 『비교민속학』 제43집,

- 비교민속학회, 2010.
- \_\_\_\_\_, 『민속종교 연구방법론』, 한국민속기록보존소, 2011.
- \_\_\_\_\_, 「향토문화전자대전 디지털 마을지의 새로운 방향모색」, 『경기도 마을지 연구의 새로운 전망』, 경인민속학회 학술대회 자료집, 2012.
- \_\_\_\_\_, 「현대도시사회에서 무속용품의 유통에 대한 현지연구-성남지역의 만물상을 중심으로-」, 『비교민속학』 제41집, 비교민속학회, 2010.
- 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아카넷, 2007.
- 김주관, 「생활사 아카이브 구축의 의미와 방법-20세기 민중생활사 아카이브의 사례를 중심으로-」, 『지방사와 지방문화』 8권 1호, 2005.
- 김창민, 「전통문화의 디지털 콘텐츠화 방안: 한계와 가능성」, 『마을 민속자원화 어떻게 할 것인가』, 민속원, 2007.
- 김희태 외 2인, 『문화재학 이론과 실제』, 향지사, 1998.
- 윌터 J. 웅, 이기우·임명진 역, 『구술문화와 문자문화』, 문예출판사, 2003.
- 윤은하, 「공동체와 공동체 아카이브에 대한 고찰」, 『기록학연구』 제33호, 한국기록학회, 2012.
- 장철수, 『한국 민속학의 체계적 접근』, 민속원, 2000.
- 한국구술사연구회, 『구술사 방법과 사례』, 선인, 2005.
- 한미경·노영희, 『기록관리학의 이해』, 진리탐구, 2007.
- 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서울대학교출판부, 1985.
- 岩竹 美加子, 『民俗學の政治性-アメリカ民俗學100年目の省察から』, 東京: 未來社, 1996.
- Bastian, Jeannette A, *Community archives-the shaping of memory*, London: Facet Publishing, 2009.
- Dundes, Alan, *INTERPRETING FOLKLOR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1980.

Gilliland, Anne J, "Community-centric Appraisal in Support of Community Governance, History and Voice", 『사회 거버넌스와 역사연구를 위한 기록관리의 역할과 기록학의 패러다임 변화-기록의 평가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외국어대학교 기록학연구센터 국제학술회의 자료집, 2012.

## A Conjunction of Folklife and Archival Science : New Dimension for Folklife Archival Science

Kim, Duk-Muk

Folklife archival science(folklife: Folklore is generally used in English-speaking countries but it has a strong meaning as remnants of former times. That's why I am using the term-folklife instead of folklore in this paper. I think folklife is more appropriate term for expressing studies on daily life culture and also my intention to unite the both word in this paper) is a new academic movement, I propose, which is intended on convergence of advantage of folklife and archival science. In other words, taking advantage of the two branches of study(folklife, archival science), it becomes a practical studies which systematically organize records, preservations and application on living culture in any community. It demonstrate deeply on archiving and archive and It conducts a probe into records, preservations and applications. It is a method of technical study in order to record communities like village, rural society and modern city.

In the mean time, there is no well defined and established methodology for archival science and for folk-area or community archiving. And therefore, It needs a research methodology in a folklife. In the other hand, there is a lack of a theoretical basis, methodological strategy and clear vision over folklife and field survey or method of survey. Therefore, converging advatage of the two studies(folklife, archival science), we can

combine professionalism of community archiving and methodological strategy together.

key words : folklife, archival science, folklife archival science(民俗記錄學),  
community archiving, community archives

## [부록] 용어 설명

### 1. 민속기록지(folklife records)와 민족지(ethnography)의 차이

민속기록지는 생활문화를 체계적으로 기록한 보고서나 논문으로써 인류학에서 사용하는 에스노그래피와 차이가 있다. 에스노그래피는 다양한 환경 속에서 각각의 민족집단이 어떻게 살아가는가에 대한 비교 분석을 목표로 한 것이며 연구대상도 그러한 환경에 인간이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가는가에 대한, 즉 인간을 중심 테마로 놓는다. 이러한 이유에서 인류학자 강신표는 인류학을 ‘人學’이라고 하였다. “문화인류학자가 현지조사를 할 때에는 자기가 연구하려는 인간집단의 사회에 들어가서 보통 1년간 그 사람들과 함께 살면서 그들의 행동과 사고방식 및 생활양식을 관찰·질문·기록함으로써 자료를 수집한다. 이와 같이 현존하는 어떤 인간집단의 기본자료를 수집하여 그 사람들의 생활양식, 즉 문화의 여러 측면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술한 보고서를 민족지라고 한다”(한상복 외, 『문화인류학개론』, 1985). 민족지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으나 실제로 인류학자들은 현장에 가서 꼼꼼한 기술(記述)을 통해 보고서나 기록지를 만들기 위해 힘쓰지는 않는다. 인류학자들은 기록에 대해서 그다지 애착이 없다. 오히려 기록보존에 대해서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는 경향이 있다. 그들은 상세한 기록 대신, 문화비평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민족지 서술에 있어 기록보존적 입장에서 문화를 기술한다면 ‘조사보고서 같다’는 비판을 할 것이다.

민족지 기술에 있어 인류학자들이 원하는 것은 경험적인 관찰에 이론을 접목하여 비평한 결과물을 도출해 내는 것이지, 상세한 기술과 6하원칙을 토대로 메타데이터를 첨부한 기록지를 원하는 것은 아니다. 민족지에서는 장소나 행위자 등을 공개하지 않고 익명으로 처리한다. 기록을 통해 정확한 1차자료(실물 혹은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담은 기초자료)를 도출하고 그것의 맥락을 잘 설명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

공하기보다는 가급적 기초자료의 공개를 피하고 익명성을 보장하며 연구자의 설명에 의존하게 한다. 이렇게 될 경우 연구자가 설명하는 것의 밖에 있는 다른 것을 독자가 살필 수는 없다. 민족지는 연구자의 일방적인 설명문이 되며 독자는 그가 제시하는 길만을 따라가도록 설계된다. 반면 민속기록지는 1차자료적 성격을 담보하면서 연구자에 의존하지 않더라도 독자들이 충분히 1차자료를 접하고 자신의 시각에서 볼 수 있도록 개방한다. 따라서 민속기록지는 가급적 모든 정보를 솔직하게 제시하며 연구자의 일방적 설명 대신에 독자들이 가감없이 1차자료를 접할 수 있도록 설계한다.

민속기록지도 민족지처럼 인간을 도외시 할 수 없으나 인간 못지않게 공동체에서 전승되는 지식과 문화를 중시한다. 물론 양자 간에는 주로 현장조사(fieldwork)를 통해 정보를 취득한다는 점에서 공유점이 있으나 근본적인 지향점은 전거한 바와 같이 차이가 있다. 아카이빙을 위한 기록방법은 ‘민속기록지적 연구방법’이다. 현대 기록관리학이 지향하는 공동체의 ‘정체성’이나 역사와 문화찾기를 위한 아카이빙, 아카이브는 민속기록지와 통한다. 따라서 민간기록이나 공동체 기록화에서 생산된 보고서는 에스노그래피와는 차원을 달리하며 ‘민속기록지’라고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2. 민속기록물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기록물이라 함은 공공기관이 업무와 관련하여 생산 또는 접수한 문서·도서·대장·카드·도면·시청각물·전자문서 등 모든 형태의 기록정보 자료와 행정박물을 말한다”(국가기록원,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령집』, 2010)고 규정한다. 기록물관리학 개론에는 기록물이란 현용-준현용단계를 거친 이후에도 행정적이고 학문적인 목적들에 따른 지속적인 가치, 즉 선별작업에서 기록물관리의 가치 또는 기록물관리의 권위를 인정받아 기록물로 분류

되기에 충분해야 하며 역사기록물로서 전문기록물 관리기관에 의한 관리대상으로 평가되어야 하며, 더 이상 업무의 추진이나 진행에 필요하지 않으며 기록물로 불릴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성숙된 상태에 도달해야 한다고 한다(김정하, 『기록물관리학 개론』, 2007). 전통적인 ‘기록물관리학’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정의가 합당하다. 민속기록학에서는 ‘기록물’이란 공공기관의 업무에서 파생되는 문서에 국한하지 않고 공동체의 기억과 흔적을 증거해 줄 수 있는 모든 유형의 자료를 포괄한다. 즉, 용어를 넓은 범위에 적용한다.

### 3. 민속과 민속학의 개념

•근대민속학 : 민속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오늘날 새로운 정립이 요구된다. 서양에서 ‘folklore’에 대한 관심은 근대국가 성립기에 이른다. 즉, folklore는 근대의 필요성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라고 볼 수 있다. 근대국민국가의 성립, 내셔널리즘(nationalism), 근대 이전의 것에 대한 애호와 같은 낭만주의 경향 등 다양한 요소가 folklore의 성립에 내포되어 있다.

민속에 대한 한국에서의 관심은 실학자들에까지 거슬러 올라갈 수도 있고 근대학문의 입장에서 볼 때는 최남선, 이능화, 송석하 등이 민속과 관련된 글을 쓰기 시작하던 20세기 초반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시기의 관심은 민간에서 전승되는 문화, 즉 영국의 톰스(William J. Thoms)가 처음 사용하기 시작(1846년)한 folklore에 가깝다. folklore를 일본인 야나기다 구니오(柳田國男)는 ‘민간전승’으로 번역하여 사용하였다. 이것은 민간에서 전승되는 잔존문화, 혹은 구습에 가까운 개념이며 민속을 이렇게만 보면 그것은 오랜 세월 동안 유지되어 온 정태적인 현상의 잔존물로 볼 우려가 있다.

•오늘날의 민속학 : 오늘날에 와서는 인간 사회에서 실천되고 있는

일상의 ‘생활문화’를 민속으로 정의해야 한다는 시각이 제기되었으며 최근 다수의 학자들은 이러한 견해를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문제는 민속학에서 생활문화의 개념을 어떻게 잡을 것인가이다. 장철수는 민속을 생활문화로 정의하였으나 그것의 내용에 대해 더 구체적인 논의가 요구된다. 생활문화를 ‘folklife’, 즉 민의 생활로 볼 것인가, 아니면 ‘folklore’, 즉 민의 전승문화로 볼 것인가.

필자가 본문에서 사용하는 생활문화는 ‘folklife’에 가까운 개념이다. 물론 생활문화라고 하여 전승성을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folklore 이 전승성을 주축으로 한다면 folklife는 민속의 생성과 변화, 전승의 측면을 고루 검토하며 전승지식(lore)이나 문화 못지않게 행위자인 민(folk)에 대해서도 주목한다.

필자가 민속으로 정의하는 생활문화는 단편적으로 관찰되는 민의 생활이 아니다. 그것은 일정한 공동체에서 양식화된 생활문화(의식주생활, 신앙 및 의례생활, 놀이 및 여가생활, 생업 및 사회생활 등)를 중요하게 다루게 된다. 이렇게 양식화된 생활문화란 곧 ‘생활양식’이다. 이것은 공동체에서 일반성과 전형성, 맥락성을 띠는 생활문화로서 포착된다. 일시적, 혹은 한 개인에 의해 실천되는 생활문화를 공동체의 일반적인(일반화된) 생활문화라고 할 수 없다. 즉, 개인적인 혹은 지엽적인 folklife가 아니라 공동체의 일반성에서 보여지는 folk의 lifestyle(way of life)이다. 따라서 민속학에서 주로 대상화 되는 민속은 공동체, 일반성, 전형성, 맥락성이라는 키워드 속에서 고려되는 양식화된 민의 생활문화이다. 이러한 민속은 민간영역을 포괄하며 공동체 아카이브(community archives)의 자원이라고 볼 수 있다.